朝鮮日報
夕刊 六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發行定期刊物 朝光(月刊) 女性(月刊) 少年(月刊)

白鶴 酒

北上部隊猛擊으로 徐州의敵軍大打擊
津浦線要害蚌埠包圍

【上海五日發同盟】揚子江北岸에 上陸한 安達、永津各部隊는 大運河北端에 行動을이르키여 二日에는 盱眙縣城을 新年의血祭에올리고 五日早朝에는 그前衛部隊는 臨淮關에 進出하고他方津浦線○○方面으로부터 前進中인田代、倉林各部隊는 張八嶺을突破하고 ○○을確保하엿다 이리하야 徐州、南京間鐵道上의 要害蚌埠는 揚子江北岸作戰中의 我神出鬼沒의 進擊에依하야 包圍에陷入되어 徐州方面의敵은 遂次南北으로부터 多大한 威脅을 受하게되엿다

山西戰況

某處着情報=太原陷落後 待機中이든 ○○部隊는 十二月廿一日부터 年末의 寒風을 冒하고 大討伐을 開始하야 光輝잇는 効果를어덧다 그最近의 狀況을들면 如左하다

一、楡次、平定中間인 馬坊鎭、松塔鎭附近山中에 蟠居한 共匪가 섞긴 敵千의 敗殘兵이 鐵道通信線을 壞次 妨害함으로써 秘密히 討伐計畫을進行하야 不意의 急襲을하엿다 即二十一日 小林部隊主力은 平定及蒸陽으로부터 또楡次平地로부터 山根部隊가 各各分進合擊하야 四方으로부터 巧妙하게 前進하야 二十二日松塔鎭에서 一千五百의 敵을 攻擊하야 約五百의 死體를遺棄하고 潰走시켯스며 山根部隊는 道路鎭、自波鎭에서 約二百의 敵을 擊破하야 二十三日에 馬坊鎭을 占領하엿다

二、小林部隊의 主力은 返轉南進하야 高田部隊와 協力하야 昔陽方面에 討伐을 開始하야 二十三日에 松子嶺一帶의 敵을 擊滅하엿다

三、山根部隊는 返轉하야 森本部隊及和爾部隊와 三方面으로 前進하야 大谷東方地區 村落에 散在한 共匪를 擊滅하야 山石嶺一帶의 敵을 掃蕩하엿다

四、그리하야 各方面이 모두 만흔 効果를엇고 二十五六日에 各其 休養하엿는데 約四五千의 敵은 約百의 死體를 遺棄하고 멀리 南方으로 退却하엿다

五、討伐以外에 各部隊는 各各新政府에 合流하는 縣政府의 樹立、援助、宣撫工作에 힘쓰고잇는바 壽陽、平定、初縣、大谷、楡次等 追次로 縣政府가 成立하야 이를 援助하며 或은 日語學校를 開設하야日本語의普及에 힘쓰고잇는데 이미 君代歌를 合唱하는 小學校도 잇서서 날마다 明朗한 山西의 氣分이 노퍼가고잇다 그리하야 各部隊는 이를 指導하고잇슴으로 年末도 年始도업고 또施療兵救恤等도 하고잇스며 民衆도 速速歸還하야 各城內는날마다 賑盛하여가고잇다

廣東省武裝自衛의 具體策大略決定
省內十八歲以上四十歲男子로 武裝自衛團을組織

【香港四日發同盟】廣東省內의全省抗敵武裝에 關하여는 過日余漢謀가 首席이되여 各關係長官及 廣東軍 首腦 陳紹福 蔣光鼐 蔡廷鍇 香翰屛 李福林等을 召集하고 具體策을 協議하고잇든바 大體로決定을 짓게되여最高全省自衛委員會를 組織하야余漢謀督軍下에 置하고 正副主任及 委員若干名을 設하야 主任에는 余漢謀 副主任에는 陳銘樞를任命하고 蔣光鼐 蔡廷鍇 李福林 香翰屛各師團長 各司令官 總司令部參謀長等을 委員으로決定하엿다 計劃案의 大要는 廣東省沿岸軍要地를 四個의特別自衛區로分하야 其地勢에 應하야 二縣或은 三縣으로서普通自衛區라하고 이를 十六區乃至 二十九區로 設定하야 其自衛區內의居住者로 十八歲以上 四十歲以下의男子를 自衛團員으로하고 將來에는 그들을 正規軍化하려는것이다 人口稠密한 廣州、中山、順德、新會、台山等 一等縣은防禦團을 編成할 模樣인데 第一區 百二十團 第二區三百六十團 人員合計百萬以上에達하고武器補給은 小銃六、七十萬挺으로推定된다 彈藥 其他의 補給은 企盡統一下에 行할 豫定이다

英陸軍年頭人事

【東京電話同盟】駐日英大使館附陸軍武官비꼿트少將은 六日午前十時陸相官邸에 杉山陸相을訪問하고 英國陸軍을 代表하야 我軍에對한 年頭人事를 述하고英國元帥로 게시압신 天皇陛下께對하와 全英陸軍將校一同으로부터의御祝詞를 傳達하여드리기바라다는것을 述하고 同十時지나辭去하엿다

濟南邦人被害判明

【濟南五日發同盟】濟南日本居留民의 被害狀況은 居留民團役員의調査에依하면 民間被害總額約六百萬圓 公共被害는 濟南病院만으로도 百數十萬圓에 達할豫測이라는것이 判明되엿다 濟南居留民四百五十戶中 完全히 남은것은 特務機關官舍 副領事公舘 民團宿舍 東本願寺外 小民家十二、三棟에 不過하다 濟南病院二層은 爆破全燒하고 病棟看護婦宿舍에도 僅少하지만 被害가잇다 領事舘은 領事公舘、演武所를 除한外全燒하고 測候所도 全燒 日本人小學校는 講堂만 燒失하고 其他가 겨우燒殘하엿스나 이것도 支那兵의掠奪로 말할수업는狀態이다 忠魂碑의遺骨는 日本內地에 가지고왓스나 緯門中學는 破壞되엿고 民間에는 鍋屋金水旅館森本雜貨店 三泰與當(質屋)의大建物은 全燒 二大馬路 緯三路 緯七路의 邦人商店街三十餘棟은 無慘하게도 掠奪되고 特히支那人街와接한緯十路 邦人集團店舖는 모두完全히 掠奪되엿다 其他各倉庫內의 貨物의被害도 甚하야이를復興함에는 적어도 二個月은 걸릴것이라고보인다 居留民은 一刻이라도 빨리歸還하려고 天津에서 焦燥하고잇스나 食糧과 宿舍不足으로 歸還할수업서 十五日겨우 世帶主二十人을 入濟시키여 復興에努力하기로 되엿다 또高岡民團長은 六日急遽濟南으로부터 東京으로 向하야議會에 被害補償 復興費의 支出을 陳情할터이라한다

養石山房主人 趙東旭氏 試毫

兗州城遂占領
沼田部隊入城式擧行

【濟南五日發同盟至急報】桑田快速部隊의 先遣隊는 飯野准尉指揮下에 四日午前九時 兗州를占領하고 桑田部隊主力은 同日午後三時 兗州에 入城하엿다

【濟南五日發同盟】桑田快速部隊에 策應하야 進擊한 沼田部隊의 主力은 五日午前十一時四十分 兗州에入城하엿다 城內民衆은 我軍의入城으로 平靜에歸하고잇다 그리고 兗州北方의 古城(北方二里半) 二十里鋪(北方一里半)一帶에는 到處에 地雷가敷設되여잇는데 多幸히 我方에는 何等損害는업섯다

【濟南五日發同盟】膠濟線으로부터 博山線에沿하야 南下하야羊流店을 陷入시킨石田部隊는 다시 猛進하야三日午後에 至하야新泰를占領하엿다 博山으로부터의敵第二十二師가 退却할때모든 橋梁을破壞하야 我軍의進擊을 阻止하고잇섯는데 我石田部隊는 此等困難을 克服하면서敵에 猛追擊을加하고잇다

敗將韓復榘 開封에遁走

【泰安五日發同盟】當地着確報에依하면 我軍의猛攻에 맥업시沿走한 韓復榘는 自身은 隴海線開封에遁走하고 家族은西安에避難한듯하다

沈鴻烈諸城에逃亡

【上海五日發同盟】靑島市長 沈鴻烈 膠濟鐵路局長 葛光庭及衛戍司令 于學忠은 暴者 靑島를 脫出한後 消息을끈코잇는데 信憑할側의 報道에依하면 一行은 自動車로 靑島를 脫出하야 目下諸城에잇는것이 確實하게되엿다

米今年度國防豫算 九億九千萬弗突破

【華府五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五日議會에 對하야 一九三八、九年度豫算敎書를發送하야 一般公共事業費에 大削減을 行하면서도 一方國防費는 前年度의 九億五千七百萬弗에 對하야 九億九千百萬弗이란 平和時에 잇서서는只今까지에 보지못하든만큼 巨額에 達하엿다는것은 注目되는事實이다 公共事業費로부터 支辨되는것을 加算한다면 十一億弗을 훨신 突破할터로 루大統領은敎書에서 『國際情勢의推移에따러將來國防豫算은 더욱增加할必要가잇슬지 모른다』고 述하엿다 (寫眞은 루즈벨트氏)

支那撤退案 米上院을通過

【華盛頓五日發同盟】米國上院은 五日在支米國國民及 陸海軍兵力數에關한 共和黨議員 스타이와氏의 左記決議案即『國務長官은될수잇는대로 速히支那의 米國居留民數 陸海軍駐屯數와 米國人投資額을 上院에 報告하기바란다』를 採擇하엿는데 右決議採擇에앞서 보라ー、바크레兩議員은『스타이와氏가 政府의報告의 일홈비러 米國은 支那에僅少한 利害關係박게 갓지안엇스므로 支那로부터撤退하라고 決議할때에는 反對이다』고 述하고 이에對하야 스타이와氏는 左와如히答하엿다

余는 政府의 報告를 公式記錄에 揷入하려한것이다 支那에잇는 米國의利害는 結局 一部에서 생각하는바와가치 큰것은아니다 이決議案의 採擇에依하야 平和에貢獻함이 잇슬것이라고信한다

海空根據建設 米千三百萬弗로

【華府五日發同盟】스완손海軍長官은 千三百五十萬弗의 經費를 投하야 桑港灣內에 一大海空軍根據地建設에 着手할것을 四日如左히 發表하엿다

米國海軍은 桑港灣內 알라메다市寄附의 地域에 千三百五十萬弗의 經費로써 海空軍根據地를 建設하기로되여 이미 積極的準備를 開始하엿다 測量其他가 終了되는대로 各種施設建設의 請負入札을 行할터이다

루大統領、議會에 尨大建艦案提出
合計卄二隻의新艦建造費合해 五億七千萬弗要求

【華盛頓五日發同盟】루大統領이 五日議會에發送한 豫算敎書에서 新主力艦二隻 輕巡洋艦二隻 驅逐艦八隻 潛水艦六隻 其他補助艦艇四隻 合計二十二隻의 新艦建造經費를包含한 五億七千萬弗의 一九三八ー一九三九年度 海軍豫算案을提出하엿는데 國際危機에備하야 新補充計畫을 考慮하고 五日白堊舘에 海軍作戰部長리-提督 海軍大官補스·에드仝 下院海軍委員長칼ー빈손 同歲出委員長에드와ー드·테라 同委員윌리암·암스렛드等諸氏를 招致하고 新計畫에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協議內容은 秘密에附하고잇스나 白堊舘當局은 루大統領은 海軍擴張計畫에 關한 特別敎書를 發送할것이다 右에關하야는 새로운立法을 必要라는 信號를 與할用意가잇다고 말할지도모르나 今日의 協議에서는 補充計畫의 規模와新艦의 型等에關하야는 아직意見一致에 이르지못하엿다

蔣의地位强化 獨逸紙의報道

【伯林四日發同盟】프랑크프르트紙는 漢口特派員의 電報를 揭載하고 蔣政權의 動向에對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北支中支를 거의喪失한 支那는 이를內政的으로 본다면 더욱 結束을굳게하엿다할것이다 이事實은 支那의 各組織이 不完全하고 獨自的行動이 運轉함을 目擊한 我等으로서는 全然 不可解하다 또蔣介石의威力은 失墜하엿다 할것이나 오히려 實際는 國民政府內에 잇서서의 彼의地位는 强化하엿다하여도조타 그러나 支那는 經濟的으로 自立할수 잇다고는하나 日本이 武器補充의 길을 斷絶하고또一段 軍事行動을 徹底히한다면 蔣介石은 軍事的으로 一大敗北를喫하야 支那의政情은 破局에 顚落할바게업다 그러케보면 列强이 日本에 壓迫을 加할때에 잇서서만 現政權의存在가 保持될것이라는見解가 有力化하게된다

獨逸航空船의 歐米連絡再開

【紐育四日發同盟】昨年五月六日레크허-스트市에서獨逸航空船힌덴브르크號爆破의 慘事를 惹起한以來 歐米連絡의 定期航空路는 一時挫折狀態에 잇는바 米國체펠린會社社長 에드와ー드·하이레氏는 四日에 今後五個月以內에 航空船에依한 大西洋定期航空路를 行한다고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힌덴브르크號의 姉妹船L·Z一三〇號가 近近 完成할터임으로 이것으로써 今後五個月以內에 大西洋歐米連絡定期航路를 再開할터이다 L·Z一三〇號는 今年秋까지에 十五回乃至十八回의 往復就航할 豫定이다

英米通商交涉 一月中에開始

【倫敦四日發同盟】英國政府는米國政府와의間에 近近 新通商協定締結에關한 正式交涉을 開始하기로 되엿는데 四日消息通의 말하는바에依하면 英國政府는 同交涉의 英國首席에 財政通으로 有名한 리드로스氏를 任命하엿는데 同氏는 隨員을다리고 一月中旬 倫敦出發 華盛頓으로向할豫定이라한다 또 UP倫敦支局은 同通商代表의 渡米를要機로하야 兩國政府間에는 世界經濟의 難關打開를 目的으로한大規模的 國際會議開催計畫이 有力化하고잇다고 報하엿다

蔣介石依然 長期抗戰을豪語

【紐育五日發同盟】目下漢口에잇는AP特派員 모리슨·밀스氏는 去十二月二十二日武昌附近의 支那軍大本營에 赴하야 蔣介石軍事委員長과 會見하엿는데 會見記는 遷延하야 겨우五日紐育에到着하엿다 蔣은同特派員에對하야 依然長期抗戰을 豪語하고左와如히述하엿다

日本軍今後의 攻擊에備하기爲하야 我方의 新作戰計畫은이미 確立한 我軍隊가 上海及南京戰線에서 日本軍의 强力한機械化部隊에依하야 損傷되엿스나 이를再編成하야 增强함에는 僅二個月間으로足하다 我軍은 今春부터 準備한五十個師를 戰線에配備할計畫이다 萬若支那軍이 軍事的으로 敗北하여도 支那는 決코 屈伏하지안는다 日本人은 가장 自衛心이强한國民이다 할 것이다 我軍은 勇敢한 敵軍에對하야 上海에서 三個月間이나잘抵抗한 事實에 我軍의威嚴力을證明하는바이다 戰爭의終焉은 아직前途遼遠하다

다음 밀스特派員으로부터 粵漢鐵道가 日本軍에 依하야 遮斷된다면 어떠케할터인가 하는 質問을 發하엿슴에 對하야蔣介石은 如左히答하엿다

그때에는 따로通路를 發見할것이다 過去 數千年間에 我等은 어떠케던지 物資를充實할수잇다는것을 배웟다 萬一의境遇에는 駱駝등에라도 物資를 運搬한다는 原始的方法에 依할것임으로 念慮는업다 日本은海岸線을 封鎖할만으로서는 到底히 我等의命을막을수는업다 그보다는 日本軍은 占領地域의 秩序를 維持하기爲하야 二十五乃至三十個師를 必要로할것이다 土地를 占領한다는것은 占領地域을 保持함보다 比較的容易한일이다

上海에暗躍하는 抗日테로團一黨

【上海四日發同盟】最近의 테로事件頻發에鑑하야 租界工部局當局에서는 猛活動을하야 逃亡犯人一黨及그背後關係探索에 努力하고잇는데 이를 上海의 테로리스트는 大體로 左와如한諸分子로된것이라고 觀測되다

一、『蘇州河事件의 犯人과가티 張發奎麾下의 支那軍當局이 日本人의 作戰行動을阻害할目的으로써 上海市內에潛入시킨 組織的便衣隊

二、上海市民協會委員을엿본 犯人과가티 抗日에煽動되여 個人或은 그룹이되여 活動하야 主로親日支那人을엿보는 一派

三、元旦을期하야 我紡績을狙擊한犯人과가티 組織한手製爆彈을가진 非職業的테로리스트또는 單純히金錢授與를目的으로한 暗殺團의 一黨

廣東軍發表

【上海六日發同盟】廣東軍當局은 廣東方面의防衛에關하야 六日朝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日本軍은 目下廣東省中山縣或은台山縣方面에來襲할지도모르므로 軍當局은 目下廣東及斗山의兩縣에亘하야 直通道路를建設中인데 最短期間內에 이를完成하기爲하야 多數의苦力을 使用하야 道路橋梁의建設에 着手하기로되엿다

銘酒 キクマツ

長期抗戰에備해 軍事機關組織

【紐育五日發同盟】蔣介石은 所謂長期抗戰에 備하야 兵力의 强化를 企하는 한편 最近政府組織의 改組를 斷行하엿는데 五日紐育에達한 漢口AP電에依하면 軍事機關의 組織을 如左히決定하엿다

一、蔣介石은 軍事委員長으로서 軍事를 總攬하고 經濟及重工業의 統制는 孔祥熙가 그任에當한다

一、軍事委員會를 改組하야 作戰、軍事訓練、軍政政治訓練、軍法、輸送、宣傳으로한다

또AP電에依하면 新作戰에備하기爲하야 新兵의徵募는 各地에서 大規模로 行하고잇서 支那側은 完了할豫定인데 長期抗戰에 備하야 新春까지에 八十個師의 編成을 할 軍政及彈藥의 準備는 充分하다고 豪語하고잇다

布哇新西蘭 定期空輸開始

【紐育四日發同盟】汎米航空會社는 布哇、新西蘭의 定期空輸를 開始하기로決定하고 年末年始에 亘하야 사모아의크리스마스島 오클랜드(新西蘭北島)定期便飛行을開始하엿는데 來週부터 二週間에 一回 호놀룰루、오클랜드間定期貨客輸送을 行할것을 發表하엿다

時事解說 英米軍備擴張

◇

世界政局의 不安을따라 列國은 軍備擴充에 汲汲하고잇슴은 周知의 事實이다。

最近의 情勢를보건대 昨年早春二月 英國政府는 總額十五億磅(約二百五十五億圓)五個年計劃의 古今未曾有의 陸海空軍大擴張案을 發表시키어 世界의耳目을 聳動케하얏다。뒤이어 米國은 三月의 議會에서 總額五億二千二百八十四萬七千八百弗(約十八億圓)을 通過시키어 平時로서는 破記錄的 厖大한 海軍豫算(一九三七ー一九三八年度)의 成立을보아 軍擴을 예상외 꿈으로 만들고마럿다。이에 또 다시 拍車를 加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去五日에 議會에 發送한 豫算敎書에잇서서 赤字克服을 爲하야 一般公共事業費에는 大斧鉞을 加하면서도 國防費는 飛躍的增額을 要하야 九億九千百萬弗(一九三八ー一九三九年度)을 計上하야 前年度國防費九億五千七百萬弗을 突破하고 그中 海軍豫算을 보면 五億七千萬弗을 計上하야 破記錄的이라하는、前年度海軍豫算을 께트리고 新記錄을樹立하야 大大的擴張을 企圖하고잇다。

◇

米國은 歐洲大戰以來 世界第一의 海軍力保有를 目標로 華盛頓會議에서는 主力艦의對英패리티를 獲得하고 또倫敦會議에서는 補助艦의 對英패리티를 獲得하야 宿望達成에 邁進하여왓다。이리하야 英國이 一步前進하면 米國도 一步前進하고 또한 日本이 一步前進하면 米國도 一步前進하야 無敵海軍을 자랑하는英國을 凌駕하고 世界에 君臨하려는것이다。

여기에 今番의 米國擴張計畫內容에 對하야서는 傾聽을 要하거니와 그海軍豫算의 通過는 最近의 國際情勢로보아 거이 確實하다고보아도 조흘것으로 이리하야 米國은 一九四二年末 英國의 大軍擴計畫이 完成되는때까지에는 倫敦條約에 規定된 最高限의 海軍力을 完全히 確保하게될것이다。

이러한 軍備擴張은 非但英米에 限한것이아니고 世界一般의 風潮로서 世界政局이現今과가티 不安한때잇서서는 막을려야 막을길이 업슬것이다。

支那軍에參加한 各國義勇兵數
◇合計ー四百四十八名

【杭州에서五日同盟】支那軍隊中에는 相當히多數한 各國軍人이參加한것은 周知의事實로되엿는데 各國志願兵은 合計四百四十八名에 達하야 그國籍別은如左하다

米國人 一五二名 (死傷一、現在一五一)
佛國人 一二四 (死亡一、現在一二三)
蘇聯人 一一五 (死亡一、現在一一四)
英國人 五五 (現在五五)
其他 一五

右各國志願兵中 十分之九는空中戰鬪員으로 年齡은 二十一歲로부터 三十九歲까지인데 彼等은 支那空軍司令으로 空中戰鬪에서 日本機를 擊墜시킨者에對하야 五千弗、一萬弗의 賞金을 下附하기로되엿다 그리고 그中에는 白系露人도蘇聯志願兵과 함께 共同으로 服務하고잇다고 傳한다 그리고 右統計外에 支那國籍을取得한 白系露人의 參戰者는 二百名에 達한다고한다

敵飛行根據地 全支에四個所

【上海五日發同盟】確實한 情報에依하면 現存한 敵의 飛行根據地는 西安 宜昌 漢口 南昌의四個所라 指目되는데 四根據地에 待機中인 敵機는 모두外國製로서 그數는 約八十乃至百機라고보인다

敵爆擊機六台 南京蕪湖에來襲
痛烈한反擊으로遁走

【上海五日發同盟】五日午前十一時敵爆擊機六機가 南京及蕪湖에 出現하여왓스나 我空軍의 猛烈한反擊에 遭遇되여 南京上空에는 一彈도投下치못하고 蕪湖에서 數個彈을投下하엿슬뿐으로 即時 어데론인지 遁走하엿다 我方에는 損害는업다

蘇飛行士二百 廣東에到着

【香港五日發同盟】支那側의 報道에依하면 蘇聯飛行士二百餘名은 最近廣東에到着하야 이미支那空軍에 編入되여 出勤待機中이라는데 그들은 蘇聯政府로부터 派遣된것이아니오 自發志願하야 從軍한者이라고 孫文의 三民主義는 반듯이 支那를救할것으로 確信한다고 支那의長期抗戰을 煽動하고잇다

朝鮮在留支那人 달리取扱키로決定乎

支那事變勃發後 朝鮮에在留하든 支那人中에서 約半數가 歸國하고 現在約四萬二千名이 殘留하여잇는데 그間北京에 中華民國臨時政府의 新政權의 誕生을보게된後 그들은果然 어떠한態度를가지게될것이냐하는것이 極히注目되든中 그間京城總領事范漢生氏가 新政權에參與한다고正式표明을하야 新政府에 領事로서就任케된後 他地方의領事로서는 釜山에서는陳領事가退却하고 袁領事가新政府의領事로서就任하고 新義州領事도四日에正式으로 新政權支持의 聲明을한外에 在留支那人은 京城을비롯하야 各地方에서 集團的으로서의 全部가 新政權支持의 聲明을하야 이로써 朝鮮內의 支那人은完全히 新政權下에 中華民國人民으로 滑徹함이마당하게된것으로 總督府當局으로서도 在留華僑에對한 取扱保護를 從前과달리하기로 大體의方針이 決定될模樣이다

大野政務總監 來十七八日渡東

新春朝鮮의 多端한 事務關係로 去四日飛行機로 歸任한大野政務總監은 急急히 時局其他緊務를 處理한後 來十七、八日頃 다시 渡東하야 議會에出席할豫定이다

人事·集會

▲大原龍三氏(新任平壤地方法院檢事正)七日午後三時半 京城驛發赴任豫定

▲廣瀨四郞氏(警務局圖書課屬)六日午後二時半京城驛發鄕里富山縣에往復二週間旅行豫定

▲金觀楨氏(水原高等普通學校校長)入京人事次來社

▲安熙濟氏(前中外日報社長)慶南宜寧郡富林面立山里에서 去三十一日에逝去

八面鋒

米國의 明年度 軍事豫算은 九億九千萬弗 이에 名目만公共事業인 軍事豫算을 合하면十一億弗이라고。

◇

十一億弗이면 日本貨로 約三十三億、日本의 明年度 豫算보다 五億을 超過。

◇

英國은 五個年計畫으로 十五億磅을 計上하엿스니 英米의 軍備擴張程度를 알수잇거니와

◇

이리되면 英獨海軍協定、英蘇海軍協定에 依하야 獨蘇가 軍擴할것이 大勢。

◇

그야말로 一九三八年은 海軍無條約 第二年으로 軍備競爭이 激甚化。

◇

이리되면 結局 建艦能力의 多寡에 따라 勢力이 決定될것이어니와

◇

一九四○年을 世界危機라 떠든도 當然한 觀測。

◇

오늘이 小寒。節氣는 날씨를 아는지고、零下 十五六度라나?

海草精 適應症 ロイマチス ホルモン化學研究所

明菓ミルク洗粉 理想的美顏料 살거칠어짐防止와손질에

金儲 最新式 製氷機 菓子機械 カタログ呈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裡機械製作所

ヒト軽油發動機 燃料節約・取扱簡單 出馬力强大・堅牢無比 特許局特選 シリンダー交換式 二馬力부터十二馬力까지 元給配 土肥發動機釜山出張所 釜山府大倉町一丁目 電話長二六九番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朝報案內 家具 集金

靑春座 新春大公演 劇界의覇者
젊은그들 林仙圭作 全四幕
明七日밤부터 ◎學窓로멘쓰◎
명배 (가나다順) 金任澤李卞孫韓黃 金金柳李李池趙車車黃 東士長東基元流一 ◇鮮淑海貫吉聖美敬紅銀

오늘(六日)밤뿐 ▲上演劇本▽
九月山人作 寸劇 네것내것 一景
結婚悲歌 李瑞求作 三幕四場
笑門萬福來 南宮春作 一幕二場
△特別豫告▽ 사랑하는까닭에 冠岳山人作 五幕
아버지는눈물담해 一幕 李雲芳作
◎乞期待!! 東洋劇場

寥寥한事變年賀

引受 五割七分減 配達 六割三分減

全朝鮮主要郵便局總決算

전조선의 이번년하우편물의총결산을보면 주요한우편국인 경성국(京城局)외이십일우편국의년하우편물의 인수한수는 칠백사십이만구천팔백사십일통으로 전기에 비교하야 오할칠분이감소되엿고 또배달수는 오백사십이만이천팔백사십오통으로 전기에비하야 륙할삼분이 감소되엿다 이감소률로 추정한전조선 각국소의 년하우편물은 인수가일천륙백이만구천칠백사십통으로 전기에비하야 이천백이십사만팔천칠백이십륙통이 감소되고 배달은 일천백사십이만사천칠백칠십삼통으로 전기에비하야 일천구백사십오만이천구백구십사통이감소되엿다

년하우편료금의 수입으로보면 전조선년하우편추정수량에 대한 료금수입개산액은 삼십이만칠천구백 륙십팔원 사십팔전 으로 전기의 수입액오십칠만오천이백칠십일원팔십삼전에 비하야 이십오만칠천삼백삼원삼십오전이감소하엿는바 이번에는 앞서우편료금의 인상이잇섯기때문에 취급통수의 감소률이 오할칠분인데대하야 료금액는 사할사분의 감소에그첫다 그리고 경성부내 각국의 작년십이월십오일부터삼십일까지의 소포우편물취급수량은 인수구만사천오백구십륙개로서 전기에비하야 오히려 일할일분이 주가되고 배달은사만구천사백사십사개로서 전기에비하야 일할이주가되엿다 년하전보는 경성국외이십사국의 주요국에서 십이월일일부터 삼십일까지의 취급수량은 수부(受付)일천칠백칠십사통으로 전기에비하야 륙할이감소하고 배달은 사천사십사통으로 전기에 비하야 칠할이 감소되엿다 우편절수류(類)로보면 시내 각국의 십이월일일부터 말일까지에 팔린것이 칠백사십팔만팔천백사십오매로서 전기에 비하야 삼할사분이 감소되엿다

宣教本部好意回電을 實行委員會에 披歷

革新理事會決議對策講究코저

今日合同協議會

북장로회조선선교회가 그들의 소위〃교육이퇴원측〃에 의하야 명년신학기에 경신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의하고 그전제수단으로 금춘신입생을 모집하지안는다고 주장함에대하야 동교리사회가그동안세번회의를 거듭한결과 드듸여 작년십이월이십팔일의 회의에서 다음과가티 선교회측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바 교존속의 결의를 하엿다함은기보한바와갓다

一、明春新入生을募集 二、新入生募集關係로 宣敎會에서經費負擔지안흘時는 他一團體에서 此를負擔할일(註‖他一團體라함은 京城老會와同門會를말함) 三、後繼設立者를 速히세울것 四、宣敎會所有物은 適當한時期에 返還할일

리사회의 이와가튼 불퇴전(不退轉)의 결의에대하야 선교회로서의 태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위하야 선교회 실행위원회는 기보한바와가티 륙일오전아홉시부터 위원장〃로ー드〃(魯解理)씨집에서 열엿든데 위원 일부명이 전부출석하엿스며 전기결의에 대하야 장시간론의를 거듭하다가 사건이 중대하니만치 리사회로서의 의견청취할 필요가잇다고하야 오전열시반부터 리사장이요 경신교장인〃쿤쓰〃씨외열명의 리사와 합동회의(合同會議)를열고 열두시까지 장시간 의견교환을하엿는데 이회의의석상에서 리사회를대표하야 리채호(李采鎬)씨로부터 전기결의까지의경개와 결의문에대한 상세한 설명이잇서 리사회의 구든결의를고려하야 문제가 대구두학교와가티 호전(好轉)되기를 히망하는 동시에 지난팔월이십칠일 동씨가 동문회장으로서 미국외지 전도본부에 경신존속을 간원한데대하야 십이월칠일부 본부총무 『레ー버』씨로부터 『모든문제가 다행하게해결되기를바라며빈다』는 호의(好意)잇는 회답이 작오일에 온것을 공개하야 그들에게 다시한번 본부의 호의적태도를 지적하야 맹성(猛省)을촉한바잇섯다 열두시 리사단과의 회의가갓난다음 실행위원회는 일시휴게를한뒤 오후네시반부터는 경성스헤ー슨원과의 의견교환이잇슬터이며 저녁일곱시부터 다시위원회 본회의로드러가 선교회로서의 최후적결의를 하기로 되여잇슴으로 과연어떠한 대답이 나올는지 선교회와의 관계에잇서서는 최후의 판두(關頭)에선 경신장래를 위하야 중대한관심을 끄으는바이다

委員會에對處 理事會를開催

이날 경신리사회에서는 오전아홉시반부터 리사장『쿤쓰』교장집에서 새해처음의 리사회를열고 별항실행위원회에서 인사의말과 결의문을 설명할 대표자로 리채호씨를선정한뒤 실행위원과의 합동회의에출석하엿스며 오후부터다시 회의를열고 위원회의결의가 『이에쓰』냐『노』냐를속단할수업는 지금으로서 회

吉例消防出初式

南總督臨場下에盛大히擧行

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의 소화십삼년 소방출초식(消防出初式)은 륙일오전열시부터 부내 광화문통(光化門通) 경기도청(京畿道廳) 아페서 성대히 거행되엇다

정각이되자 남총독(南總督)립석하에 국기게양(國旗揭揚) 령지봉독(令旨奉讀) 황국신민서사제송 소방서원、소방원의 점검(點檢) 분렬행진(分列行進)등이 잇슨다음 이어서 연기(演技)에 드러가 사다리타기 색수방수(色水放水)를 마치고 소방공로자의 표창식(表彰式)이 잇섯스며 가튼열한시반봉식을 마첫다 이날날세는 조왓스나 령하십륙칠도의 흑한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의 관중이모혀 신년벽두에 일대호화판을 전개하엿다

◇消防出初式畫報 상으로부터 식장、방수연습、경례식、사다리타기

新正을등진暗黑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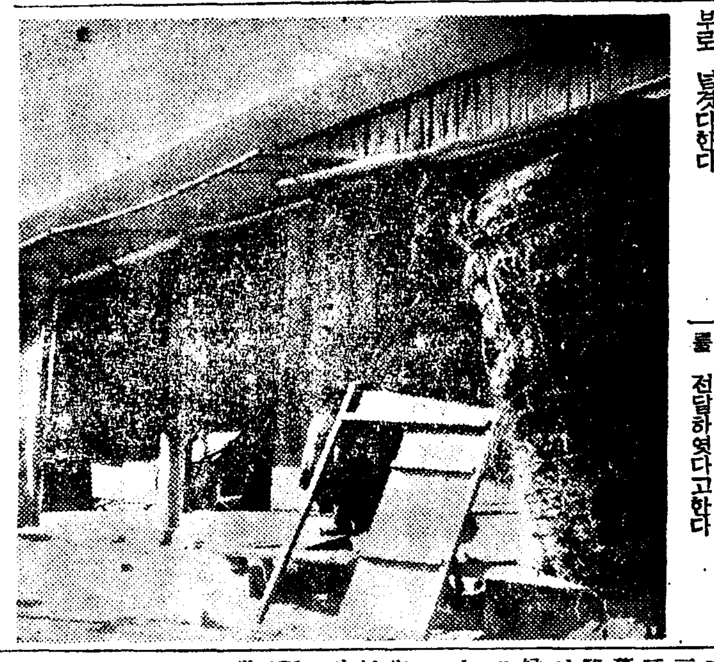
경성부두부터 서부경성에 강도(強盜)를 비롯하야 갓난아이를 죽인 어머니며 친구를때려죽인사나이등 피비린내나는 사건이터저 나와서 양력설을 지낫스나 음력섯달의 살벌한기분이 떠돌고잇다

蓬萊町에強盜

西大門署서猛活動

食刀로脅迫現金四十五圓强奪

오일오후 아홉시 사십분쯤해서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이백구십륙번지 안태순(安台順)(五三)이의 차전가게에 안태순이의 안해 리전이(李全伊)(三七)와 그의 수양딸 김정수(金貞洙)(二三)가 가개를 보고 잇는중에 나히 설흔 가량 되여보히는 장한 한명이 침입하야 그집안방으로뛰여들어 기리다섯치가량되는 식칼을 견우면서 돈을내라고 협박하야 금고에잇던 현금사십오원을 강탈하야가지고 뭇유히자최를 감추고말엇다 이날밤 열두시경에 이신고를바든 소관서대문서에서는 곳각처에수배를하는동시 강본(岡本)사법주임이하형사대가총동원이되여범인을엄탐중이다 (사진은 강도든자전)



不義씨를壓殺

女給身勢로職業에障碍

生活難으로드디어惡行

시내의주통(義州通)일정목 칠십팔번지 그전녀급으로잇던 박화자(朴花子)(二七)가 사일오후두시경에 자기의갓난아이를 이불로눌러서 죽엿는데 곳이사실을 탐지하고 소관서대문서원이 그여자를 붓잡아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이다 전기박화자는 작년봄에 시내련병정(練兵町)에 잇는 『아까노렌』이라는 음식점에 여급으로잇던중 어떤 일본내지인이 술을먹으러와서 작간하로밤 사랑을속삭인것이 고만 그의씨를 가지게되여 드디어 작년십이월구일에 아들을 낫케되엿는데 아이를 밴뒤에는 배가불러서 여급노릇도못하고 전기주소에서 근근히 사라가던중 아이를데리고 금후 생활을 해나갈길이업서 전기자택에서 그와가티 악살하게된것이라고한다

歲饌代身棄兒

삼십일오후한시쯤 부내명치정(明治町)불란서교회 뒤문에 바구니에다 가세찬처럼산 기아(棄兒)가잇섯는데 그어린애는 여

賭博끄테格鬪 一名은即死

警察은加害者를取調

시내현저정(峴底町)사십이번지의삼백칠십구호 양복직공 조흥구(趙興九)(二八)와 현저정사십륙번지의사백십팔호에사는 엄동섭(嚴東燮)(三〇)과 자기집에서 회투도박을하다가 싸홈이나서 현저정산(山)이번지의사호 돌중계에서 서로멱살을잡고 승강을하던중 잘못되여 둘이굴러떠러저서 엄동섭이가 돌에머리를부듸처서 즉사하고말엇는데 방금가해자 조흥구는 소관서대문서에서 상해치사(傷害致死)로 엄중취조중이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 今夜는晴一時曇이고 明日은 北西風이불며 날이조타

昨日最高 零下四度一
同 最低 零下一五度四
今朝最低 零下一二度
今日正午 零下八度二

年賀狀을廢止 老養院에寄附

【鎭南浦】평남룡강군다미면(龍岡郡多美面)보명농민학교장(普明農民學校長) 김병률(金秉律)씨는 금년 연하장(年賀狀)을폐지하고 이를기렴으로 진남포천주교경영인양로원(養老院)에 금일봉을기증하여달라고 본보진남포지국에의뢰하여왓음으로 즉시양로원장서이량(徐伊良)씨를방문하고 이를 전달하엿다고한다

神戶二中을一蹴코 養正決勝에

明日、秋田工業과決戰

12……0

【大阪支局特電】第廿回全日本中等學校蹴球大會第三日 所謂蹴球의覇王인 福岡中學을 破하고 天理中學을 完敗시킨 養正은 昨五日午後一時부터는 甲子園球場에서 同大會의優勝候補라고 떠들든 神戶二中을相對로 對戰한바 前半三點、後半九點의 得點으로 壓倒的優勝으로 養正軍이 大勝하야 明七日午後二時부터 열리는 決勝戰에 朝鮮代表養正과 秋田工業과 對時케되엿다 秋田工業은 撫順中學、保靑商業、壽都中學等을 擊破하고 決勝戰에 臨하엿는데 이곳의下馬評으로는 養正軍이 有利하다고 본다

養正 12 (3:0 9:0) 0 神戶二中

淑明籠球敗退

第十七回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 女子部에 出場한 淑明女高籠球部는 五日午後七時半부터 東京府立體育館에서 新潟高女軍과 第二回戰에서 對戰한바 結局三十二對十五로 敗退하엿다

崔龍振、張祐植兩君

千五百、五千優勝

全日本學生氷上第一日

全日本學生氷上大會스피ー드競技第一日은 五日午前十時부터 八戶市長根링크에서 열렷는바 五千米레ー스에 明大의張祐植君이 九分十一秒五의 日本學生新記錄으로 優勝하엿다 그리고千五百米레ー스에는 崔龍振君이 二分三三秒二의 快記錄으로 一着하야 朝鮮出身選手의 舞台를 이루고잇다 이리하야 明大는 一日의 得點이 二十五點이고 早大는 十點으로 明大의六年連覇는 거의 確定的으로 되엿다 (寫眞左는 崔龍振君 右는 張祐植君)

【千五百米】(쎄파렛·코ー스)
1、崔龍振(明大)二分三三秒二
2、南 洞(早大)二分三六秒九
3、金旺燮(明大)二分三八秒二
4、中 村(早大)二分四〇秒六
5、張祐植(明大)三分四〇秒七
6、大 川(慶應)二分四四秒二

【五千米】(오픈코ー스)
1、張祐植(明大)九分一一秒五(同大會新記錄)
2、南 洞(早大)九分一九秒二
3、尹寬植(明大)九分二二秒二
4、安重熙(明大)九分三六秒二
5、杉 浦(早大)九分五四秒一
6、瀧 口(早大)九分五九秒八

普專快勝

全日本籠球第二日

對殿台俱樂部戰에

【東京支局特電】第十七回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第二日은 六日午前九時부터 一橋國民體育館에서 開戰된바 第一回戰에 不戰一勝한 普專軍은 昨六日에 殿台俱樂部(全明大)와 第二回戰에 對戰하야 前半三十五對十八 後半三十一對十六으로 結局六十六對二十六의 大差로 普專軍大勝하야 第三回戰에는 今七日午後五時부터 千葉OB와 對戰케되엿는데 이곳의 豫想으로는 參加한十七團中에서 京都帝大、延專、普專이 優勝候補로 뚜렷한 存在가되여잇다 그리고 普專、延專、淑明의 宿所는 神宮外苑日本靑年會館이라한다

城大하키惜敗

全日本學生氷上하키 大會第一日은 五日午前十時부터 芝浦링크에서 열린바 이에 出場한 京城帝大팀은 第一回戰에 慶應大學과 對戰하야 延長戰에 드러가 二對一로 惜敗하엿다

慶應 2 (1:0 0:1 1:0) 1 京城帝大

比島遠征軍 第二戰經過

洪、崔君判定勝

比律賓遠征中의 아마튜어拳鬪 레스링軍의第二次戰은 三日午後八時부터 『마닐라·리살·스타디움』에서 레스링은 陸軍士官學校軍과對戰한바 라이트級의 金錫鎬君은 『마요ー』選手를 손쉬게 이겻고 拳鬪部는 極東大學과對戰하야 洪在浩 崔龍德兩君이 判定으로이겻스며 金明錫君은判定으로 左龍振君은反則으로 앗가웁게 물러섯다

(플라이級) 히비리드 判定 濱口
(밴탐級) 뮈요코 判定 金明錫
(페더ー級) 洪在浩 判定 바스카르
(라이트級) 崔龍德 判定 로ー다리드
(웰터ー級) 뮈라카바 反則 左龍振

▼…金明錫君對뮈요코戰은 金君이 優勢하엿는데 審判은 뮈요코의손을드러 監督이 抗議하엿스나 듯지안엇고 左龍振君은가벼운低打임에도 不拘하고 反則敗를 宣言하야 審判의不公平을暴露하엿다

氷上의三勇 札幌向發

七日午後一時에

오는 十四、五、六日에 北海道札幌서 열리는 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에 出場할 朝鮮代表金正淵(總督府)李聖德(平鐵)李仁源(平讓)三選手는 明七日午後二時四十分 京城驛發 『노조미』로 札幌으로 向하야 出發하리라한다

新春마즌스포츠戰線

快哉!捷報連放

럭비、氷上、拳鬪各遠征隊等

破竹之勢로長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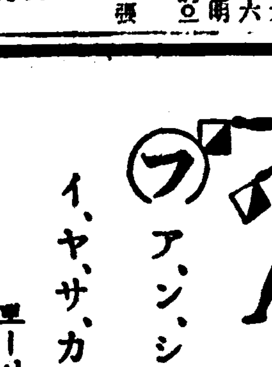
희망에가득찬 새해를마지하야 조선스포ー츠계는 각지에원정중인제용사들로부터 련전련승의첩보가 쉬일사이업시 뒤를이어드러와 명랑화악하고잇다… 작오일 대판지국특신에 의하면 양정(養正)럭비ー군이 신호이중(神戶二中)을 손쉽게이겨결승전에 드러갓다 그리고 작오일부터 청삼현팔호시(靑森縣八戶市)에서열린 전일본 학생빙상(氷上)대회에서 오천메ー돌레ー스에 장우식(張祐植)군이 화생신기록으로 우승하엿스며 비률빈(比律賓)에 원정하야 제일전에 전승의 패적을 남긴권투와 레스링군은 지난삼일에 제이차전을 행하야 두선수만은 앗가웁게 패하엿스나 삼선수는 당당히 개가를 올리엇다 그밧게 각종목에대한 상보는 별항운동란에 게재하거니와 련일스포ー츠전선으로부터의 승전고는 끗칠바를 모르고잇다

新春擲柶大會

富川支局主催

【素砂】본보부천지국에서는 신정을 마지하야 양력과세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오는일월칠일 팔일 양일간 소사신흥관 사설극장에서 소사신흥척사대회를 개최한다고한다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ア、ン、シ、ヨ、ク、ン、ノ、イ、ヤ、サ、カ、チ、井、ノ、ル、
보ー이菓子
スカウト
菓子店에잇고五전식

流行歌 알뜰한당신 黃琴心
新民謠 漢陽은千里遠程
一枚金円拾銭
빅타ー 靑盤

小兒用 コデス 고데스
百日咳에
먹기조코·효果잇는 小兒用고데스
定價二十錢부터 藥店에잇습니다
東京·大阪 笹岡藥房

恩給 京城鍾路二丁目八 金星商會 電話(光)六三九番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京城府花町二〇四의三

口腔外科・齒科一般
朴扶榮齒科
京城鍾路一丁目電車停留場前 (漢陽タクシー二層)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몹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두머리를알을때……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무겁고흐릿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조치못할때나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흘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대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店에잇습니다
中國藥房에도무러보십시요
ノーシン 노ー신
定價 四包入二十錢 七包入三十錢 十三包入五十錢 二十八包入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食慾素 わかもと
胃腸의組織에活力을주어、衰弱한機能의自力更生에依해서健全旺盛한食欲을喚起식힘
粉末卅日量、錠劑三百錠一圓六十錢

日活 黃金座
4日より 7日まで
新春第二週
阪東妻三郎主演 飛龍の劍 1・45 6・30
朝日 京日ニュース 10・30 2・45 7・30
東和商事提供 海のつわもの時代 10・45 3・00 7・45
日活多摩川總動員 時代の霧の春の卷 12・35 4・50 9・35
完全煖房

各種信託 迅速有利
低利貸出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京城南大門通二丁目 百卅番地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咸興 (營業內案贈呈)

京城貫鐵町二一八(鍾閣後)
肋膜病專門 海雲內科醫院 醫師 李圭暐 電話光三八六番

特約店大募集 規定書送呈
桂掛洋服收納器(服掛一個付) 一個代金一圓八十錢
伊藤利商店 名古屋市中區老松町 振替名古屋一〇三七九番

一個定價 輕便洋服收納器 一個代金二圓九十錢
長三尺六寸

ヤンマーデーゼルエンヂン
他機に比し燃料消費量絶對僅少
一時間一馬力當り一錢強
內燃機界ノ覇王
大量製產・在庫豐富
京城府京城驛前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本社・大阪市北區茶屋町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九

長篇小說

濁流 【82】

蔡萬植 作　鄭玄雄 畫

杏花의辯 (5)

다섯살먹은 마음은 다 제각기 달으게 동요가되엇다。얼골마다 또렷또렷하게 마음을 드러내노앗다。

초봉이는 행화가 웨일인고시퍼 이상하기도햇스나 그러것을 생각해볼 경황이어서 수집은게 앞서서 얼골이 홍당무가 되어가지고 벗빗이 돌아서서잇다。

계봉이는 태수의 얼골은 알어볼수가잇스나 형보를보고 저건 어데서 저런 숭허운게 잇는고 또 태수가 웬 기생을데리고 다니는게 밉경 부랑자거니하는 생각으로 불쾌한기색이 선연히 드러난다。

형보는 고수우해서 속으로

(너 태수 요년석 거저 잘꾸사니야!)

(바지가랭이가 조옴 켕기리!)

(조러케 묘하게생긴 계집애한테루 장가를 들라면서 기생년을 꿔어차구 다니니 하늘어 얼어보질일이지)

(아무러나 초봉이 너는 내것이니 그리알어라 호호)

어떠케 조하죽는다。

행화는 초봉이가 초봉이인줄도 몰으거니와 그가 태수하고 결혼을 하게된『초봉이』란는것도 몰으지만 제중당에서 친한 그새악씨가 와서잇스니까 반갑기도하고 이상하기도하여 뻘르르하니 초봉이한테로 달려든다

태수는 이리도못하고 저리도못하고 그러나 이러케고 저러케고간에 무얼 어떠케 분간할 도리도업서 밀경 웃상을한다。

행화는 초봉이의 손목이라도 잡을드끼 호감스럽게

『아이고!오래만이오!』

하면서 초봉이의 숙인 얼굴을 디려다본다。

초봉이는 입이 아니떠러져서 인사대답은 하지못하고 눈으로만 반가워한다。

『건대、웬일이오?예?』

웬일이라니 행화 네야 말로 웬일이냐고 물어보고싶흔말이다

초봉이는 말은 못하고 이뻐게 웃는 러아리만손으로만진다

형보는 제가 나서야할때라고 아그작아그작 세여자가 서서잇는 옆으로 가까히가더니

『아 두분이 친숙 아신닙까?』

하면서 고개를 뒤로 재친다。

『어어가 알구말구요! 어떠케 친햇는데요 하하』

『원 그런줄은 몰랏구그래!… 허허허 그런데 이 행화란말하면 나하구 그저 참 그저 다 그럿습니다 허허 그러구 저 고수사하구 어떤에 결혼하실 용? 알앗겟지?」

「아이야! 원 어쩌면!」

행화는 시키하다고 여기고 게를 끄덕어리다가 태수를 돌려다보면서 의미잇시 웃는다。

「거참 두분이 아신다니 나두 반갑습니다 허허 나는 이사말하구가려서 어데를 좀 갓다오느라구 이아프루 지내든 길인데 바루 문아페서 고은을 만낫서요」

이만하면 초봉이나 계봉이의 행화에게대한 의혹을 넉넉 풀수가잇다。

그러나 실상 초봉이는 그들이 행화를 데리고잇슴 계봉이처럼 태수한데다 치의를하거나 그래서 불쾌하게 여이거나 그러지는 안헛고 좀 이상하게 보고말엇을 따름이다。

초봉이가 겨우 허리만 남붓숙여 뉘게라업시 인사를 하는체하고 계봉이를데리고 대문깐으로 나가니까 행화가 해뜩해똑 태수를 돌려다보고 우스면서 떠러나간다。

태수는 형보의 재치로 일이 무사하게되여 가슴이 겨우 내려가는데 행화가 그러고 따러나가니까 혹시 무슨 이야기나 할가바서 여신 눈을 흘긴다。

행화는 대문 바갓 문지방을 잡고서서

「잘가시요 예?…… 내 호인날 국수먹으러 가께요」

하고 작별을한다。초봉이는 눈에 바가운 모양을 닥어가지고 확 와닫끈는 뜻으로 말업는대답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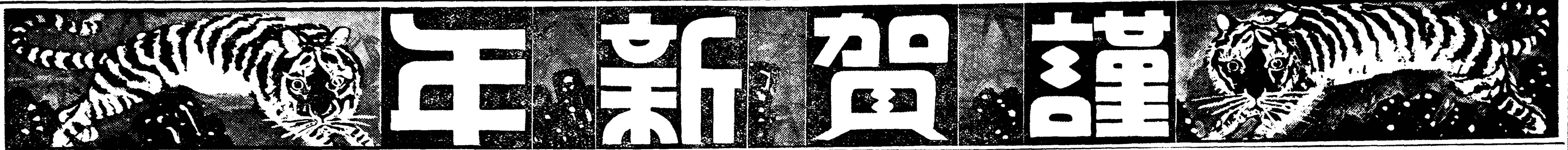
행화는 돌아서서 들어오지아니하고 그대로 초봉이가 계봉이와 나란히 가고잇는 뒤태를 바라다본다。

그는 제중당 전시방에서 처음 초봉이를 만나든때부터 어데러업시 마음이끌려 조케 역엿섯다。그래서 말하자면 털어놋코 친해지기보다 정이 먼첨 갓섯고 그런때문에 인제 알호로 훨신 친숙하게 지낼수가잇스리라고 생각햇섯다。

그랫는데 오늘 알고보닉 그가 바루 태수의 아낙이될 색시요 그래서 행화 저와는 서루 시앗이요 외동세가 되게된것을 생각하니 이건 누가 미리서 이러케 다 일을 꾸며노앗든 작란이 아닌가십게 이인연이 신기하고 재미가 잇는것갓탓다。

그는 그저 일이 신통하기도하고 재미나기도하고 할만이지 합시부리한참동네아낙 김씨처럼 레수를노코 초봉이를 생각하면서 흥기하는 생각은 나지아니햇다。

그는 자리러 초봉이가 가엽서보엿다



江陵木曜會

中樞院參議 江原道會議員 崔準集

江原道江陵邑 江陵合同酒造株式會社 電話一五・二〇六番

江陵獸肉販賣合資會社 金振恪

江原道江陵郡江陵邑旭町二二六番地ノ三 京春鐵道株式會社 貨物自動車部江陵支店

江陵邑長 草場亮一

江陵郡廳員一同

江陵郡麻布契聯合會

江陵邑內 ⓜ 貨物自動車江陵荷扱所 電話一二七番 高城、杆城、襄陽驛前

江陵邑 江原道會議員 劉明順

江陵酒造組合

江陵稅務署

江原道江陵郡江陵邑大正町 朝鮮麵子株式會社 江陵支店

江陵邑旭町魚市場 海陸物產委託販賣及貿易商 英信商會 電話江陵一三四番

江陵邑旭町魚市場 海陸物產委託販賣及貿易商 大東商會 主 崔燦映 電話一六九番

江陵邑大正町 協同商會 電話一六二番

朝鮮日日新聞社 江陵支局長 黃宅鐘

江原道江陵邑本町 雜貨商 幸益商店 李周宣

江陵邑旭町 江陵和信連鎖店 電話一五一番

東京火災保險代理店 太陽生命保險代理店 全相舜商店 電話二五番

江陵邑林町 文具商 普文堂 主 李昌培 電話一七一番

江陵邑本町 合同印刷所 鄭應澈 電話一三五番

江陵邑本町 井出龜

江陵邑 堀江慶一

江陵土木管區

江原道江陵大和町 江陵酒造株式會社 電話三九番

江陵印刷組合長 崔燦允 電話一二五番

土木建築請負業 各種鐵物製作 江陵邑旭町 岩本竹七 電話一一三番

江原道江陵郡江陵邑林町 東海興業株式會社 電話一五番

江陵邑 今城俊雄 電話一一番

江原道立江陵醫院 職員一同

朝鮮江原道江陵郡江陵邑林町 二二一番地 江陵電氣株式會社

江陵買鑛所

江陵邑本町 昭和時計店

江陵郡玉溪面事務所職員一同

江陵郡玉溪面山溪里 木材 炭商 權赫魯

江陵郡玉溪面山溪里 分鑛業 吳周鶴

江陵郡玉溪市 溪興商店

江陵郡玉溪面山溪里 分鑛業 洪淳永

江陵郡玉溪市 玉溪金融組合一同

三養社 分鑛業者 金振錫 稱名(在福)

江陵郡玉溪面小溪里 金在河

江陵郡玉溪市 崔富吉

江陵郡望祥面釜谷里 鑛業 韓昌東 稱名(コト)

江陵郡玉溪市 玉溪醫院

江陵郡玉溪面南陽里 大洋金山社

江陵郡玉溪市 工事請負業 李花春

舒川面新松里 朴宇錫 朴昌錫 朴晋錫 朴瑢錫

長項和信連鎖店 電話五一番

黃弘學籾摺工場 舒川面花枍里

大昌商會 朴性寬 李恒俊 任一淳

極東寫眞館 李圓源 白超植

長項漁業組合長 金鍾震 自宅舒川面舒川里

鍾干漁網 專務 金順泰 西南面松石里

忠南精米所 李重元 電話九番

丸禮精米所 鄭澤春 電話一八番

羅秉素 西南面南田里

羅錫周 舒川邑

秋敎永 西南面玉南里

禹殷植 馬東面堂仙里

金容直 舒川面斗旺里

道會議員 趙南天 事務所 舒川邑和信 自宅 舒川面席村里

舒川郡 西南面長 具誥鉉 外職員一同 / 鐘川面長 林鍾九 外職員一同 / 東面長 李精一 外職員一同 / 文山面長 金德煥 外職員一同 / 時華面長 張河景 外職員一同 / 馬東面長 管作一 外職員一同

硝子球製造 共榮社 專務 張學淳

朝日百貨店 主 宋昌燮

舒川印刷所 金壽福

大植印刷所

京南理髮館

吉山勞働組合 組合長 趙宗九

舒川各官公署團體

長項穀物商組合

日比外科 齒科 長項醫院 京城齒科醫學士 朴成實 助手 張貞根 看護婦 李玉鄕

株式會社 東一銀行 長項支店

土木請負業大同組

金守坤 舒川面花枍里

羅昌鎬 吉山浦

全載誠 馬東面德岩里

趙宗九 吉山・廣信商會

羅吉鎬 吉山・吉與商會

具弘燮 時草面新谷里

李載河 鐘川面席林里

板橋 朴英來

京南線長項 合資會社 鮮滿興業 南鮮出張所

金石濟 華陽面望月里

禹英濟 馬東面堂仙里

金良濟 鐘川面鐘川里

朴性達 板橋東一農場

金東煥 吉山・元吉藥房

金用順 馬東面山西里

李龍鎬 長項作業株式會社

布木雜貨婚具 成賢商店

山西里 金東峯

舒川郡西南面玉南里 秋敎鉉 秋敎采

申珏永 電話五二番

大興旅館 主 方道植

成敎鏞 長項・鐘江旅館

精米業 永興組事務所

東一商會 主 丁世鎭

印仁圭 馬東面松內里

東興洋服洋靴店

朝鮮料理 花朝園

東亞商務左社 專務員 金日斗

宮崎農場

長一商會 主 許濚

友利洋靴店 主 朴鈗宇

코무・米穀 宗煥商店

面協議員 尹柱英 西南面玉山里

羅東煥 西南面玉山里

羅鍾河 西南面南田里

申泰植 舒川面花城里

尹吉燮 文山面文章里

面協議員 羅壽河 西南面南田里

羅貴安 文山面水岩里

楊致星 文山面水岩里

具成鉉 西南面桂東里

具在日 時草面新谷里

舒川郡學校職員一同

大同産業株式會社

時計眼鏡 正午堂 主 劉秉瓚

林檎果樹園主 林忠金

漁業組合仲買業 任元鎬

長項トラック

米穀華東商會 主 宋哲植

舒川シンガー裁縫會社 羅重烈

大洋紙物商會 任明鎬

長洛商會 主 李浩植

金益濟

禹重植 馬東面堂仙里

司法書士 金斗[illegible]

西南面農民救援會長 羅泰河

金鍾禹 鐘川面長久里

金良培 舒川面新松里

羅相哲 西南面玉山里

李[illegible] 文山面[illegible]里

權斗杓 時草面新興里

朴永泰 時草面新興里

白南廷 馬東面山內里

白秉權 馬東面山內里

朴宗圭 馬東面松內里

長項 黃圭[illegible]

李曉[illegible] 文山面[illegible]里

林鎬元 鐘川面長久里

金淳[illegible] 西南面漢城里

全載[illegible] 西南面漢城里

醫生 李[illegible] 吉山

李[illegible] 文山面院吉里

李[illegible] 文山面院吉里

許[illegible] 文山面院吉里

鄭[illegible] 舒川面[illegible]里

尹[illegible] 文山面文章里

金東[illegible] 時草面[illegible]里

朴甲[illegible](吉山)

任秉[illegible] 鐘川面席林里

舒川金融組合板橋支所 朴鴻緖 徐載雄 柳培根 申珍浩

襄陽面事務所職員一同

縣北面事務所職員一同

襄陽郡廳職員一同

襄陽郡降峴面 事務所職員一同

江原道襄陽邑內 公醫 鐵道囑託醫 濟世醫院 醫師 吳桂龍

江原襄陽邑 江原道會議員 高德柱

縣南仁邱 仁邱漁業組合職員一同

縣南面事務所職員一同

縣北下光丁 熊城組出張所

東海北部線東草驛前 東亞商會運輸部 代表 李種憲

襄陽面長 張元植

西面 面長 孫秉煥

襄陽金融組合下光丁支所職員一同

江原道襄陽郡邑內 丸一百貨店 電話三六番

江原道襄陽邑 綢緞布木 各種雜貨 米穀貿易 新興商店 主 李光默

襄陽邑 朝鮮料理 明月館 崔南植

有志 金榮龜

有志 尹重明

江原道襄陽邑 各種鐵類販賣 各種ヒユガルポンプ 諸機械製作販賣 各種農具 運送用金物品 金陽鐵工所 主 金哲圭

江原道襄陽 土木建築請負業 崔洙根

朝陽醫院 醫師 金萬基

江原道襄陽邑 綢緞布木商 謙豫誠知己 電話三五番

洋服商 金二鼎

綿布商 兄弟商會

고무靴專門商 朴基煥

襄陽驛前 無名氏

襄陽料理 陽明館

朝鮮商界發展策

和信連鎖店株式會社長 朴興植

머리말

朝鮮商業界를 아프로 어떠케 하면 좀더 向上시길수가잇스며 또 좀더 發展시킬수 잇슬가하는問題는 現下朝鮮商業家들에對한重大課題일뿐만 아니라 朝鮮消費大衆의 其日常生活을 通하야 언제나 痛感하고 또 不斷히 關心을 가지게되는 問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그러나『朝鮮商業의今後의發展策』이란 其題目부터가 대단히 重大하고 또 廣汎한問題이니만치 누구나 말하기를 躊躇하게되며 나自身조차도 한갓 외람된생각이 업지아니 하지만은 不足하나마 自身의 過去二十年間 商業經營의 實際體驗과 日常的으로 痛切히 느낀바를 土臺로하야 純粹한理論보다도 實際問題에 重點을두고 紙面이許하는限에서 簡單이 要領만이라도 所信을披瀝코저한다

商業의참意義

商業이라고하면 大槪는 아직까지도 單純한 個人的營利機關으로만 생각하고 商人이라면일곳줄 市井의謀利輩로만 誤解하는사람도 적지아니한 模樣이다 그러나 이는 無理도아니라고생각한다 웨 그러냐하면 過去의朝鮮商業界는 周知하는바와가티 그經營方法이 대단히 幼稚하고 商人그自身들의 人格的水準이매우 低劣하엿던까닭에 日常去來上에잇서서 顧客을對하는 態度부터가 매우 不親切할뿐만아니라 외눈리란든가 외상制度가 잇는것을 通해서 顧客에게 不安을 끼치고 또 甚하게는 顧客을 愚弄하는일까지도잇서서 消費者側으로서의 不便不利益은 이로다 形言할수가 업섯던것이아니가 이러한 人的要素와 經營方法이 過去數百年 數千年間을 두고 朝鮮商業經濟部門을 支配하고 風靡하엿스니 業界의 空氣가 어찌 沈滯치안흘수가잇스며 社會가 어찌 害毒을 맛지아니햇슬수가 잇섯스랴。

그러나 歷史의 흐름이나 時代의 要求이란 참으로 무서운것이어서 오늘에 잇서서는 그러한 經營者를 社會가 絶對로 容認하지아니할은勿論 商人들도 漸次로 自覺이 생기고 또 有爲한 新進人物들이 商界로 投身하게됨을따라서 商業이란것이 單純한 個人의 營利機關에 끄치는것이 아니라 商店 그것은社會的財貨의 配給機關으로서의重大한意義를 가지게된다는것을明確히 認識하리만치 商人意識은 高揚된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商人이全部가 다 그러타는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當代朝鮮商界의 覺醒에서서 朝鮮商界를 實質的으로『리ー드』하는 少數의 指導者層의 意識만은商店 그것을 單純한個人的營利機關으로만 보지아니하고 社會의 財貨를 可重하게 잘保管하엿다가 消費大衆에게 언제던지 親切하고 便利하게 供給해야는것을 使命과 任務로 自覺하고 努力할수잇게 된것이다。마치醫師가 할난사람을 고처주는것이나 辯護士가 억울한사람을 法網에서 벗겨주는것이나 發明家가 人類社會에 對하야有益을만히 끼칠만한 新發明品을 研究하는것이나 敎育家가 社會에하엿잇는 人材를 만히 培養해내는것이나 政治家가 國家의 福利增進政策을 立案하는것이나實에 잇서서 職業的意義에잇서서는 秋毫만치도 等差가 업슬은勿論 그社會的 經濟的意義와 役割에잇서서도 자못 重要한地位를 차지하게된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잇서서는 商業家로 活動하려면 먼저 社會에 奉仕하려는 至誠과 한가지로 이만한 自覺과 意識上의準備가 잇서야 할것이며 또朝鮮商業界가 今後 漸漸 더노픈 階段으로 向上發展해나아감에 잇서서 이러한精神的雰圍氣를 빠지안코서는 絶對로 所期의目的을 達할수는업다고 생각한다。

商業의選擇

商業을 經營함에잇서서 첫재로 問題가되는것은 即『商業의選擇』일것이다。商業을 처음으로 經營하려는이는 大槪가 다그마음으로 그리고잇는 標準으로 目標만을 바라보고 商業經營의 主體가되는 自己自身을沒却하는수가만타 그래서 大槪는그商業이 有利해보이기만하면 自己自身의 力量을 冷靜히 헤아려보지도안코 經驗도 趣味도 信念도업는일을 大膽하게 盲目的으로 着手부터해가지고 첫出發에서부터 羅針盤업는 汽船과가티 키업는 배와가티 이리기웃 저리기웃 離航을 거듭하다가 마침내는 目的을 達치못하고 哀惜한 犧牲만을 내게되는일이 非一非再하다。그러나 시작하기전에 먼저 그商業이 有望한가 안한가 趣味에 맛는가 아닌가 自己의 力量에 適當한가 아니한가 確乎한 自信이 잇는가 업는가 이런것을 몃十번 몃百번 몃千번이던지 自問自答으로 探究熟考해보아서 이만하면 充分하다는 完全한結論을 어든後에 事業에着手하는때에는 그야말로『圓滑軌道』에 突進하는 急行列車와가티 가다서 누가무어라고 지꺼리던지 文字그대로 順風에 돗단格으로 前進 前進을 거듭해서 마치내는 成功의彼岸에까지 到達하고야마는것이다。俗諺에 시작이半이란 말이잇는것과가티 商業經營에 잇서서도 어떠한 商業이던지 實際着手해서 經營하기前에 먼저 上述한바와가티 가장 綿密周到한 態度로서 그 選擇을 適正이 하는것이 商業經營의 向上發展上 매우 緊要한일이라고 생각한다。

商店組織統制

뿐만아니라 아무리 綿密周到한方法에 依하야 選擇된商業이라할지라도 經營者自身이 軍隊의將長格으로 어데까지던지 組織的으로 經營全機構를 合理的으로 統制해나가지안는限 그經營은 規模의大小를 莫論하고 發展이나 成功할수는 到底히不能한것이다。

이제參考삼아 몃가지 卑近한 例를들면 첫재 人事行政에잇서서 우리商界에잇서서는 情實本位主義의 弊風을 만히보게된다 조금만 무슨事業을 하게되면 곳親戚 姻戚 緣故者 門閥 學閥 地方閥等으로 事業地盤을 만들거나 何等資格이업지만은 多少出資만하면 곳 要職에 登用하는等 實로 眞實한 事業家로서는 想像조차할수업는일이만타 이가든일은 모두 結果에잇서서 그事業을 亡치는것뿐아니라 多數한사람을 못쓰게만들고 나아가서는 業界와 一般社會에까지 害毒을 끼치게되는것이다。그러므로 참된企業家는 어데까지던지 事業本位의 人事行政을 確立해야하는것이며 모든일을 本位로 處理하지안허서는 아니되는것이다。

그밧게도 賣上에 比例가 맛지안는 過多한 在庫를 店內에 死藏해둔다던지 外華에 主力해서資本의多部分을 施設에 固定해버리고 가장 必要한 運轉資金의 缺乏을 이르킨다던지 多少事業이 順調롭다해서 名譽欲을 참지못하고 商店은 店員에게만 맛기어둔채 公職에 다라나게되어서는 決斷코 商業家로서의 本分은勿論 將來의發展과 成功을 期待할수업다고 생각한다。

店員敎養訓練

그리고 우리朝鮮은 元體 資本主義文化에 뒤진만큼 商業界에잇서서도 훨씬 過渡期의 現狀을 보게되는일이 만히잇다。좀더 具體的으로말하면 한商店의店主나 幹部가되면 곳 그商店에 從業하는店員을 마치 封建時代의 奴僕이나 下人을 對하듯이 人格的으로 條件업시 下待하되 공然한 反感을 挑發해서 일을 식히거나 그러치 안흐면 放縱한個性과 自存心을 꺽거서 永永히 道德的廢疾者를 만드는境遇가 잇는反面에 店員層으로서도 大槪는 職業的洗練이 不足하니만치 일에 다다르는態度부터 深刻味가적고 研究心과忍耐力이 不足한것도 어떠程度까지 事實이지만은 그러나 結局店員들을 바로敎養하고 訓練해서 將來에有爲한 商業家들을만드러내기 爲해서는 어데까지던지 誠心誠意로 指導해서

첫재로 經營主自身부터가 熱誠을다하야 商店經營을 盤石과가튼 基礎우에 確立해노하야 하는것이며

둘재로는 合理的인 待遇制度가튼것을 樹立해서 誠心으로 店員의앞길을 여러주도록 努力해야 하는것이며

셋재로는 그商店의 經營이許하는限에서는 條給을 어데보다도 厚하게하여야하고

넷재로는 賞與金은勿論 그밧게도 利益의 程度를따라서 適當한 特別賞與金을 支給해야만 하고

오래동안 勤續하다가 退店하는 境遇에는 累進率에 依한退職金을 支給하도록하되 在職中은 條給額의 五分乃至一割을 義務的으로 貯金케하엿다가 普通七八十圓박던店員이면 十年後쯤 退職할때는 적어도 四五千圓의 退職金을 가지고 나가서 小資本이로라도 自營할수가잇도록 어데까지던지 잘指導하야 店員으로하여곰 언제나 산所望을 가지게하면은 店員누구나 商店일을 내일로알고 生命과가튼愛着心을 가지고 자나 깨나 熱誠을다할것은 明若觀火한일이다

그러나 商店의 經營者로서萬若店員에 對한 指導精神을 그릇하야 우에서 잠깐 言及한바와가티 親戚이나 緣故者를 優待하야 資格이不足한 사람이라도 조흔地位에 안게하고 商店을爲하야 最大의 能率과 熱誠을다하는 店員이라 할지라도 親戚이나 緣故者가 아니라고해서 冷待하는때에는 그商店은 到底히 健全한 發展을 期待할수업슬뿐만아니라 積極的으로 扶持할수업는일까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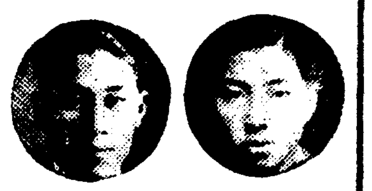
以下五面에繼續

謹賀新年

群山

謹告。時局에鑑하야年賀狀은一切省略하나이다。

群山府榮町 高級雜貨 直輸入商 天洋社 鄭在周 鄭濂洪



群山府榮町一丁目十一番地 高級綢緞 白羊社 朴台煥 朴萬鍾

全羅北道道會議員 盧競湜

全羅北道會議員 樋口虎三郞 宮崎保一 伊藤光三

沃溝郡五日會 八木農場 大成農場 嶋谷農場

沃溝郡玉山面 文鍾龜 文袁泰

群山府辛町十四番地 合資會社 東亞精米所 精米部電話長六一〇番 四六二番 糖油部 電話三三八番

沃溝郡開井面 熊本農場

群山府江戶町 安東醫院 院長醫學士 權泰亨

群山府昭和通二丁目 世昌醫院 院長 姜世馨 電話八三二番

沃溝郡聖山面高峰里 蔡巖錫

群山遊廓組合

群山府

群山商工會議所 議員一同

沃溝郡瑞山面 金光酒造場

群山土曜會

群山府尹 佐藤德重

群山 玉山堂藥房 電話二〇七番 振替京城一三三四番

群山 一新社

大野面 職員一同

湖南線地境驛前 朝鮮料理 明月館 梁金哲

朝鮮商會代理店全北群山線地境 回生藥房 梁在鎬

群山府 會議員一同

沃溝郡初等學校 職員一同

群山木曜會

濁酒 藥酒 燒酒 過夏酒 群山新興酒造場 電話三六三番

群山米穀取引所

群山米穀取引所 會員組合

群山府東榮町 群山籾取引改善組合

沃溝郡面友會

群山府東濱町 群山新炭株式會社 社長 全義鎔 電話五九番

群山府榮町一八一番地 眼鏡各種 高級萬年筆 及材料一式商 光眼堂 主 李成鎬 振替京城二〇三二九番

群山府 製藥 賣藥 沈藥房 電話九四一番

群山府辛町五 仁興商會 電話三五一番

沃溝郡守 朱時重 外職員一同

沃溝郡開井面鉢山里 鉢山精米所 主 李鎭學

群山府仲町二七四 皮革製造 宇島製革社

一新木工場主 金石斗

不二興業株式會社

花岡錦松

群山府榮町一丁目 靑年洋靴店 電話七五四番

沃溝郡瑞穗面 盧東根

昭和酒造組合 永戶正太郞 福本 丁斗燮 丁斗鉉

群山府昭和通 株式會社 共同金融社 電話一〇三四番

沃溝郡臨陂邑內 康泳昱

群山府東榮町 全一商會 主 全田 電話一一〇五番

沃溝郡大野面福橋里 壯佐隊保安組合長 張判善

慶南三千浦 松崎實三郞

全羅北道漁業組合聯合會 理事長 會長 理事 片山眞七

沃溝郡米面米堤里 陳璧浩

一山商會

群山府昭和通二丁目 金昌文醫院

大興組合 金秉奎

群山府藤町一四五ノ二 米穀商 金聲振

群山府辛町 綢緞貿易 永信商會

群山府東濱町一丁目二八四 朴茂昇

群沃酒造組合

新共組合

大野面聖德里 大野酒造場 李聖烈

群山府藤町二二 京城護謨合資會社

群山公立普通學校

群山刑務所 新和會

沃溝郡開井面元鉢山里 面協議員 李鎬永

沃溝郡開井面元鉢山里 啓蒙學院指導者 蔡一默

地境里氷鯖理髮館 李昌順

三千浦

泗川郡三千浦邑仙亀里四三番地 三千浦貿易株式會社 社長 孫再守 支配人 金長煥 電話八番

慶南三千浦邑 銘酒 三千娘 釀造元 大野酒造場 電話一五番

新樹島 酒造場 香村里 酒造場 竹林里 酒造場 宮旨里 酒造場 德湖里 酒造場 金明出 孫相範 三木吏壯 金鶴柱 朴相文

三千浦邑議員 孫仁守 金東先 金尙文 余炳華 劉相載

下二面協議員 朴應實 金泰守 崔洛晥 姜漢中 崔斗鎬

三千浦邑長 華樹寬齊 副邑長 高斑柱

慶尙南道議員 張鷹相 黃順柱

慶南三千浦邑 琴岩夜學院 院長 崔基榮

三千浦釀造株式會社 電話三六番

三千浦金融組合

三千浦船具株式會社 社長 千炳植 支配人 姜一山 電話三二番

三千浦漁業組合 電話四〇番

朝鮮商船株式會社 荷客 三千浦回漕部 電話四一番

慶南三千浦邑 材木店 婦人商會 主 孫宇常

下二面長 崔載混

三千浦邑 河振 電話四三番

慶南三千浦邑 合名會社 三千浦精米所 電話一四番

三千浦麵子製造工場 電話二二番

大同洋靴店 永昌洋靴店 三千浦洋靴店

日成理髮館 主 金巖佑 大衆理髮館 主 全錫源 福興理髮館 主 文俊燮

三千浦邑 綢緞布木 日用雜貨 陶器及金物 釜山商會 主 崔基榮 主任 崔基致

濟衆醫院 院長 梁在瓛 三千浦港 電話五〇番

慶南三千浦邑 活版 各種印刷 諸紙都散賣 中央印刷所 金基灡

三千浦邑 公醫 梁海昌

慶南三千浦邑 ゴム靴 運動靴 都散賣 晉州ゴム商組合 李相源

南陽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南泗川郡南陽面松浦里 金錫均

慶南三千浦邑 撞球場 三千浦俱樂部 金元京

慶南三千浦邑 張志明

製材販賣 三千浦材木店 朴大甲

慶南三千浦邑 綢緞布木 徐元甲商店

慶南三千浦邑 高級事務用具 和洋百貨 文華堂 金鎔烈 電話四六番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三千浦支店

慶南三千浦邑 スタンダード式バランス法 三星洋服店 金洪碩

慶南三千浦邑 各種時計販賣修繕 三一堂 金寶玉

慶南三千浦邑 三千浦タクシー 電話二三五番

慶南三千浦邑 綢緞布木 姜鳳洙商店

三千浦金融組合 昌善支所

南海郡昌善面水山里 司法書士 太成暉

固城郡下二面德明里 宋季弼

固城郡下二面沙谷里 李東熙

慶南三千浦邑 海產物商 趙鶴介

慶南三千浦邑 [illegible]

三千浦邑醫院 所長 龜岡一

慶南三千浦邑 司法書士 劉相斗

三千浦病院 院長 岩本利敎

慶南三千浦邑 船具 漁具 岸本商店 電話十七番

慶南三千浦邑 三千浦製網工場

慶南三千浦邑 シンガーミシン會社三千浦分店 主任 韓萬祚

慶南三千浦邑 古物商 姜一秀

慶南三千浦邑 高基龍商店

慶南三千浦邑 富春堂藥房 鄭正守

南海郡昌善 內科小兒科一般外科 東洋內科醫院 院長 高太植

車輦館

京義線車輦館 會席料理 東洋館

車輦館 穀物商組合 電話長六番 電略(〇アイ)文 八(アイ)

呉佐殷

京義線車輦館驛前 貿易商 三益商會 韓昌鏞

車輦館 公立普通學校

京義線車輦館 鄭永鳳

韓應範

京義線車輦館西部洞 崔秉漢

京義線車輦館 綢緞布木 人絹 紙物 諸物販賣商 大昌商會 電話十五番

京義線車輦館 唯一旅館

車輦館農業倉庫 眞崎雄司

平北車輦館 伊藤徹亮

車輦館消防組

仁尾大三郞

朝鮮平北車輦館 朝陽商會

平北車輦館 英米屋洋服店

鎭南浦

鎭南浦龍井里南浦齒科二階 高級用花 自宅及各種花圈製造販賣 振興花店 電話一〇三八番

南鎭浦府廳

鎭南浦碑石里 南浦自轉車店 白基駿 電話六二四番

鎭南浦碑石里 三成洋靴店 崔學默

大阪

高級食卓 昭和光琺瑯 各種家庭具 冷藏庫 製作所 ㊎ 金宗鉉 大阪市浪速區稻荷町二丁目九〇二 電話櫻川七八六二

本籍 濟州島 住所 大阪市東成區 協成セルロイド工業所 [illegible]

大阪市東成區 高田金屬工場 主 李石 電話天王寺三五六八

本籍 濟州島 住所 大阪市東成區 丁目六四〇 朴成喆

本籍 濟州島翰林面 住所 大阪市東成區猪飼野 三丁目三六五 福村セルロイド工業所 主 李太旭 電話東八二八六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六丁目一九 大衆食堂 平壤食園 主 金宗成

本籍 濟州島翰林面 住所 布施市大字柏田二九八ノ一 洪太石 アルミニューム製造工場

本店 大阪市東成區中川町四〇五 支店 大阪市大正區小林町一四 保命堂藥房 主 曹守奎

大阪市旭區新森小路町二九五 スマートミシン 大阪組立販賣仕入部 明正商會 主 崔甲述

全州

完州郡鳳東面 永信堂時計店 李奉文

完州郡鳳東面 李鍾茂

完州郡鳳東面市場 布木商 洪箕一

全州驛前 合資會社 田宮製材所

完州郡鳳東精米所 金恩俊

大同生命保險株式會社 湖南鳳東代理店 呉壬鳳

シンガー裁縫會社參禮分店 兪寅植

全北高山貨物自動車商會 兪祿濬

完州郡鳳東里 鳳東產業組合

全州府會議員 久永麟一 電話五五八番

全州府內 辯護士 趙南石 電話四七番

全州師範學校 附屬普通學校

全州 朝鮮人旅館組合

宇部

宇部セルロイド工業所

山口縣宇部市東區明山通二丁目 朝鮮日報販賣所 下宿業 徐政存

宇部市東區本町五丁目 土木請負 金龍得

宇部市東區見初町一丁目 土木請負 朴晩得

宇部市東區明治町二丁目 人夫供給 金甲洙

宇部市東區岬原町三丁目 人夫供給 宋是東

宇部市西區島持町 古物商 崔性道

宇部市西區本町三丁目 綢緞布木 朝鮮食料品 錫元

宇部市西區助田町二丁目 清泉堂 李元敎

宇部市西區本町四丁目 鮮靴洋靴 各種修理 特製靴店

有名漢藥房 張喜植

宇部市西區助田町中通二丁目 土木請負 崔梅均

吉敷郡西岐波村床波 韓重敎

吉敷郡西岐波村床波 漢藥房 金錫斗

宇部市西區助田町中通二丁目 金銀細工 古物商 姜鶴國

宇部市東區松山通五丁目 古物商 金鏞洛

宇部市東區松山通五丁目 朝鮮料理 釜山館 劉敬魯

宇部市東區明神町三丁目 土木請負 金仲萬

宇部市東見初炭坑へノ四號 炭坑機械部 朴泰善

宇部市東見初炭坑長生一號 組長 金享俊

宇部市東區明神町三丁目 古物商 安熙昇

宇部市東見初炭坑八ノ二 金組組長 金春瑨

宇部市東區水神町二丁目 土木請負 朴俊伊

尙州

尙州邑西町里 濟正醫院 電話一八番

尙州邑本町 고무靴 地下다비商 主 李龍達

尙州邑 趙龍衍

東山藥房 片倉生命代理店 申泳澈

慶北尙州邑南町通 日用雜貨 旣製洋服 李基憲商店

尙州邑南町 信行商會主 梁照文

尙州郡靑里面靑里 金元出

尙州郡靑里驛前 米穀商 朴魯奐

慶北咸昌 咸昌穀物商組合

尙州邑栗林里 李鎬春

水原

水原飮食店營業組合 組合長 金長龍

四面에서繼續

니라 그實은 經營도 勤勉히活動하고 繁榮할수업는것이다。비록 家族에잇서서 子與弟姪이라할지라도 一旦 店員일을 보는때에는 店員의秩序와 規律에서 公私를 混同함이업시 일과 人物本位로 어데까지던지公正한 人事政策을써서 누구던지 熱誠으로 일만잘하면 거기 相當한 地位와 待遇를 따르게하고 無能者 無責任한일이잇슬때에는 그罪責에 따라서 거기相當한 制裁를 밧도록하야 事業遂行에對한 功罪와 賞罰의 界限을 언제던지 뚜렷하게하지안허서는 아니되는것이다

그리고 店員되는이는 언제던지 緊張한 態度로 商店일을自己의일로 생각하고 熱誠을다하되 顧客에게는 親切과 叮嚀을 爲主하고 商店에 對하야는 信實과 努力에 最重하야 不斷히 商店의 發展策을 講究하되 時間이 許하는限에서 商品知識과 人格의 向上을 힘써서 가장眞摯한態度로 自己發展에 努力하는바가 업서서는 안된다 그리고 내가 多年間 體驗한바에依하면 一、二年間 勤務에서 若干의 簡易한 商品知識이나 알게되고 또若干의 貯蓄이생기게되거나 多少資本을 後援해줄만한사람이 잇는듯하면 곳그商店을나와서 自營하게 되는이가만타。그러나 그結果를보면 大槪 九割九分까지가 다失敗에 도라가고만다 누구나 將來希望을갓지안는사람이 업스며 또누구나 店員보다는 小規模라도 自營하고시픈생각을 가지는것이지만은 實際經營의 結果가 그처럼 너무나 期待에 어그러지는것을보면 그經營이 마치 모래우에심은 씨앗(種子)와 가타서 싹이나기는 쉬게나지만은 해벼테쪼이면 곳말러서 열매를 보지못하게되는것이나 다름이업다고생각한다。

要컨대 成功을 너무早急히서둘르기만하고 成功할만한 基礎를充分히 닥지못하게될뿐아니라 모처럼조흔素質을 타고나서 將來에對한期待와希望이 만흔이라할지라도實戰에 들어서 한번劣敗者로轉落이되게되면 現下의 情勢로보아 좀처럼 다시 捲土重來하기는 어려우니만치 나는 언제던지 그와가튼 靑年들을 對한때마다 大器는 晩成이라는 格言을가지고 勸勉하는바도 업지안치만은 實로 그天賦로보아 비록 拔群한人才라할지라도 무슨일이나 最少限度에 잇서서 十個年의 勤續이업시 店員出身으로 成功을 이루기는 極難한것이 事實이니까 店員되는분들은 이點을 充分히 參考해 무슨機關에서나 일을보는때에 반드시 一、二年뒤에 한두번쯤은 誘惑을밧게되는 이成功早急症을極히 삼가고 警戒하지 안허서는 안될줄로생각한다。

大槪 店員出身이라고할지라도 十個年以上을 勤續한이는 누구나 그根氣를 貴엽게생각할뿐아니라 自己自身도充分한經驗을쌋서 어데까지던지 無理함이업시 滿滿한 自信을 가지고 事業을 遂行하게되는것임으로 店主의 諒解를 어더 退店한後라할지라도 店主側으로부터 陽으로 陰으로 積極的後援을 밧게될것은 勿論 비록各各 獨立한經營이라할지라도 彼此間 손을자버서 提携하여나아간다면 반드시 雙方이 다發展하고 成功할것은 當然한歸結이라고 할것이다 要컨대 店員의 敎養과 訓練은 어데까지던지 以上과가티 實際的으로 誠心을다하야 끗까지 結實이잇도록 指導하지 안허서는 안된다。

對外信用確立

그리고 商人으로서는 무엇보다도 信用이 確立되어야만 成功한다는것은 이에 更論할餘地도 업지만은 이제 簡單히 所謂商業界의 信用이라는것을 그對象別로 區分해서 말한다면

1、仕入先에 對한信用과

2、金融機關에 對한信用과

3、顧客에對한 信用等 서너가지로 나눌수가잇슬것이다。

첫재 仕入先에 對한信用으로 말하면 仕入其自體가 商業의興亡盛衰를 左右하는것이니만치 매우 重要하다고생각한다 仕入의 要訣이라고할만한 優秀한 商品을 低廉한 價格으로 仕入한다는것은 普通常識과 資金만을 가지면 누구나 다-容易히되는줄로 생각할것이지만은 나는 絶對로 아니라고斷言한다 웨그러냐하면 아모리 經驗과資金이豐富한商店이라할지라도 仕入先으로 하여곰 저商店은 絶對로危險性이 업다는安心을 주어야하는同時에 商品知識과 信用과人格을 尊重히생각하고 저商店은 優秀한 商品을 低廉한 價格으로 提供치안흐면 사지안흘뿐아니라 또 去來를 永久히 斷絶해주지도 안는다는 認識을 갓도록해야만하는것이다。

要約해서 말하면 卽商店의品格과 威信을가지고 仕入先을 完全히 「리ー드」하고 操縱할수잇슬만치 되어야만하는것인데 其具體的方法의 把握은 말보다도 글보다도 그길에잇서서의 가장眞摯한實踐을 通해서 만이可能할것이다

둘재로 金融機關에對한信用으로말하면 周知하는바와가티 金融은 商業經營의 原動力이라고도 볼수잇슴으로 金融이圓滑하면 成功할것이오 金融의澁滯가 오래繼續한다면 모ー든精力이 이方面으로 消耗되는까닭에 衰退不振할것은 更論할餘地도 업는것이다

經營資金이 모두 自家資金이라면 失敗할사람이 업슬것이지만은 商人의 大多數가 畢竟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케되는것이 事實인데 그金融機關과 圓滑한 去來를 하고 못하는것은 옛날과도 달러서 近來는 擔保第一主義 卽充分한 擔保만잇다고해서 圓滑한去來가 될수는업다고생각한다。웨그러냐하면 近代金融機關은 金融의對象을 物色할때 먼저 그營業의 選擇을보고 둘재로는 經營者의人物을보고 셋재로 擔保物을보아 其重點은 모두其經營者와 人物에다 두게되는 이만치 上述한바와가티 商業의 經營을비롯하고 經營의 合理化만 잘되여나간다면 비록資力이 不足하다할지라도 融資한 金融이 打開될것은 明若觀火한일이다。

셋재로 顧客에對한 信用으로 말하면 어데까지던지 거짓이업시 眞正한 誠意와 親切을다하되 良品廉賣라고하는 普通商店의常識外에는 根本的으로 誠實을다하야 良品으로 優秀한 商品을 低廉한 價格으로 提供한다고하면 信用이 增大됨을 따라서 利益은 비록적다할지라도 營業이 非常히 良好해지게됨으로 薄利多賣主義를 根氣잇게最後까지 誠實히 勵行만하면 結局天下의信用이 總集될것은 不問可知의事實이다。以上과가티 仕入先에對한 信用을 비롯하야 金融機關에對한 信用과 去來處에對한 信用等 對外信用의 三要素가 完全히 움지길수업슬만치確立되기만하면 그事業의發展과成功은 疑心할餘地도 업슬것이다

結論

要컨대 以上에서 거듭거듭陳述해온바와가티 朝鮮의商業界가 其餘의 經濟部門과한가지로 飛躍的 近數十年에 比較的 長足한發展을 보여주고잇는것은 누구나짐작하는바이며 또朝鮮의現下 客觀的情勢가 朝鮮商業界 그自體內의切實한 內在的要求와 한가지로 商業朝鮮의 한階段 새로운 飛躍과 發展을 要求하게된다는것은 누구나 否認할수업는 일이다。따라서 나는 朝鮮商界今後發展策의 하나로서 許多한 歷史的 物質的 推進力과한가지로서 人的乃至 精神的活動의役割이 얼마나 重要하다는것을痛感하는까닭에 朝鮮商界의 今後動向에對하야 한가지로 深甚한關心을 갓는 滿天下諸賢에게이에率直히 淺見을 披瀝하는바이다。(完)

財界事業界情景 (下)

朝鮮商議會頭 賀田直治

○盟邦滿洲國은 國基는 마츰내 堅强性을加하야 農産物의豐作價高로 貿易數字도 好轉하고 資源産業統制方針도 善向하야 工業、重工業의 發展을보게되려하며 其半面 滿鐵今後의 動向에 問題는잇스나 治外法權도 完全히 撤廢되어 어쩐지 明朗을느끼는光景이다

○이사이에處하야 大國의 要衝에선 朝鮮에서는 內鮮人全體에 愛國心이 高潮하야 內鮮一體의 觀念은 드되어 强固를 加하고 昭和十二年은 多幸히 豐作豐漁에다 例年的인 水害도 輕微에끈치고 事變影響은各方面에決코 적지안흐나 兵站基地로서의 國防産業 特히 軍需工業의 着手 滿支貿易基地로서의 貿易産業의 勃興上에加하야 産金 電力 製鐵 製鋼 石油 石炭液化 油脂 輕金屬 飛行機 自動車 造船機械 化學工業、鐵道事業等의 計劃도 着着 行하야 이發展은 今後에잇서서 人心은 자못 希望에充滿하야 아직充分하다고는 할수업스나 伸長해가는것은 確實하다 半島는 滿洲와 北支와를兩翼으로하는鶴의形狀이며 그나마 米 牛 勞力 各種의 工業原料로 內地를 補給케하는作用은 今後 益益 濃厚하게될것이다 다만伸長해가는萌芽時代의 朝鮮에 內地同樣의拘束을 加하려는데困難이隨伴한다

○以上을 綜觀하건대 我邦財界及事業界의 光景은 幾多의難關에 遭逢하면서도 中心健全히 意氣强하게할만한 經濟力을 가지고 我國에는 아직 緊縮改善의 餘地가 相當히잇서 一旦有事時에는 困苦缺乏에 堪耐하야 對應할수잇는 國民인데 옛날은決코 只今가티 明瞭티지안허 國民時局의 認識은 반듯이 이에誘導될것이다 要는 長期抗戰을覺悟하고 第三國과의 여러가지波瀾을 豫期하야 이에對應하기爲한 戰時體系經濟財政策의 運用의 點과 만히만들어 만히버을고 만히 輸出하기爲한 稅와 貿易統制가 適切치안흐면안될點과 工業力維持上의 統制適用이 宜得하지안흐면안될點과、消費節約을 有効適切히行할以上에는 萎縮退嬰치안토록 運用을要할點과 其他 是正振作을 要할 點이 多多잇다는 世論도起하고잇서서經濟作戰과運用上에關하야 一段의留意와努力이傾注되지안흐면 안될것으로觀測되고잇다

○歲末에 臨하야 南京陷落의 快報에 國民的祝賀는 橫溢하고 人氣도 緊張되어 株高、購買增의 現象이 起하고 年末金融도 平穩한 狀況인데 戰地로서는 益益 前進하고 徐州와 敗殘兵의 掃蕩或은陣地補修를爲해 關戰하지안흐면안되며 蔣政府도 長期抗戰을 豪語하고 第二段의 陣地를 構築하야 漢口方面 廣東方面에 籠居하야 英蘇를 引入하기에 必死的으로 狂奔하고잇스므로 決코 侮慮키難한 形勢로서 銃後國民의 努力은『싸흠은 이제부터』라는 元氣를 喚起하고이러서지 안흐면안될 眞正한非常時의 歲暮이다 戰後에 더욱 緊張하야 亢龍有悔로 끌어서는안될 越年이다 武力戰에 勝利할뿐아니라 經濟戰思想戰外交戰을 通하야참된 熟慮斷行이아니면안될轉機이다。

○戰時의 第一年은 多事多忙中 數多한 빗나는 戰績을남기고 물러가거니와 第二年재이야말로 一時中間景氣가 起하는일이잇드래도 畢竟은 艱苦가 漸增할것을 覺悟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如何한 艱苦가 橫在하드라도 始作한 聖業은 徹底하지안흐면안된다。假令 姑息의 戰局을 終結함과가튼것은 貴한 犧牲에 對하야 忍耐할수업는바이며 國內的不滿이 勃發하는 因이될 憂慮가잇다 차라리 正義가 命하는곳 天命을 信하는限 堅忍持久 努力奮鬪를 一貫하야 日滿支의 經濟提携、東洋平和安定의 確立에 邁進하야 끗까지 이를 成就하지안흐면안될것이로 我邦有史以來의 重大時局에 直面하얏다고할것이다。(了)

謹賀新年

求禮

馬山面冷泉里 金澤均

求禮郡廳職員一同
各團體職員一同

光義面放光里 泉隱寺 住持 姜在源

燒酎 藥酒 濁酒 求禮酒造合名會社 電話 求禮 七番 振替釜山八三九七番

求禮百貨店 主 吳約瑟 電話求禮二二番 振替釜山三三一〇

馬山面 大本山華嚴寺 住持 鄭秉憲

馬山面甲山里 許煥

求禮郵便所長 鹽足英

求禮郡初等學校職員一同

土旨面五美里 朴炳現

求禮面山城里 金性權

求禮邑內 喪中欠禮 安定善

朝鮮全羅南道求禮郡求禮邑 全羅鑛業株式會社 求禮鑛業所 電話二一番

求禮邑鳳南里 金英淵

求獲醫院 院長 申鏞雨

有隣醫院 公醫 金安植 電話一六番

光義面大田里 金斗星

光義面溫堂里 朴宗來

求禮警察署

求禮面山城里 金炯奭

求禮產業組合 電話一七番

馬山水利組合

求禮面事務所 職員一同

艮文面事務所 職員一同

土旨面事務所 職員一同

馬山面事務所 職員一同

光義面事務所 職員一同

山洞面事務所 職員一同

龍方面事務所 職員一同

求禮金融組合 理事 高田十郎

求禮邑內 綢緞 布木 家具 三明商會 朴俊東

土旨面金內里 龍巖齋

艮文酒造場 金容珣

求禮共信酒造場 安實眞

求禮邑內 喪中欠禮 司法書士 朴奎源 電話三三番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求禮派出所 電話二九番

求禮邑內 黃三奉

求禮邑內 金英澈

艮文面竹亭里 韓秉赫

求禮邑內 安寅吉

土旨面五美里 朴萬祚

片倉生命求禮事務所 主任 李丞浩

山洞面院村里 尹昌舜

光義面放光里 李康燕

土旨面把道里 鄭昶根

艮文面竹亭里 韓東錫

馬山面馬山里 林鍾守

求禮邑內 古物商 卞三鳳

光義面細山里 柳興容

山洞面大坪里 韓福洙

求禮邑內 芝圃醫院 朴洙彬

朝鮮全羅南道求禮口驛前 求禮運送店

求禮口驛前 ⊙運送店 平田新一

院村金融組合 理事 徐宗三

求禮面元方里 朴仍圭

光義面大田里 金完斗

求禮邑內 鳳城洋服店 主 安鍾贊

求禮邑內 東京洋服店 主 金鍾九

求禮漁業販賣所長 車鐘徹

土旨面龍頭里 朴東熙

平壤

平壤 朴斑烈

平壤 李基燦

平壤 蔡元赫

平壤 金健永

內科小兒科專門 濟衆醫院 電話九二一番

平壤府西門通 尹內科醫院 尹基寧 電話二一四二番

平壤府內 順天醫院 康處洪

平壤府新陽里一六九 三盛製綿所 李秉均 田在祿

平壤府新倉里 朝鮮料理 國一館 電話一九三六番

平壤府滄町九十四番地(元、中城) 中城韓藥局本舖 電話一四〇七 振替京城一〇八七番

平安南道 高等官食堂

平壤 支那料理 一品香 電一七五三番

平壤府南門通 大平運動具店 宋錫燦 電話九九二番

平壤 趙信聖

平壤 私立 崇賢女學校 電話一七八五番

平壤基督教青年會

平壤公立中等學校長會

平壤放送局

平壤船橋警察署 職員一同

大同警察署 職員一同

平壤府館後里 眼耳鼻咽喉科 野雲堂醫院 李命斌

平壤府大同門通 喜生醫院 邊錫奇 電話一三九六番

平壤府倉田里三三一 牛島齒科醫院 特設物理療法科(광선과) 齒科醫師 韓相謙 電話二四一六番

平壤府鐘路 共昌商會 全佐庸 電話一八〇六 一八四〇番

平壤府新陽里 紀新社印刷所 電話三三三番

平壤府上需里三八 崇興商會 金崇業 電話八一六番

平壤府倉里二〇番地 全一商會 全聖勳 電話一三八一番

平壤府仁興里 百花染色工場 附屬洋襪部 電話一四三五 一四七〇番

平壤府□上里 大平被服商會 電話一七六一 二四六番

平壤府南門通 ナナオラ・ラヂオ 平壤配給所 三星電氣商會 電話一〇七三番

平壤府南門通 機械工具 五六商會本店 電話五六 二三一五 一九九番

平壤府滄町 金友洋行 電話九六一番

平壤府南門通 和洋皮革 靴鞄原料 東洋皮革店 電話二四一一番

平壤府南門通 朝鮮鐵材商會 電話二三〇八番

平壤府箕林里 料理 一心莊 電話一一二六番

平壤 鼎義幼稚園 園長 崔永福

扶餘

扶餘郡教育會

扶餘郡恩山 司法書士 俞璹濬

扶餘金融組合 評議員 南宮棣

扶餘郡窺岩面長 南基碩

扶餘郡恩山 田中精米所

窺岩面外里 精米所主 金昌善

片倉生命保株式會社 扶餘代理店 主 金九鉉

窺岩金融組合恩山支所 副理事 金炅默

扶餘窺岩 百濟洋行 主 金殷濟

扶餘郡恩山 恩山精米所 主 俞元植

扶餘郡邑內 貨物自働車部 主 李來雨

扶餘郡場岩 有志 任達淳

三成

扶餘郡石城面長 李時憲

草村面 職員一同

忠南扶餘郡 白江俱樂部

忠南扶餘邑內 合名會社 扶餘酒造場

扶餘郡場岩面 面協議員 姜賢求

扶餘郡石城 有志 千大根

忠南扶餘邑 扶餘旅館 主 李東菊

扶餘郡 窺岩金融組合

扶餘郡扶餘面 有志 禹壽萬

扶餘郡農會

扶餘郡恩山市 合名會社 扶恩酒造場

扶餘郡窺岩 窺岩研究會

北薪峴

滿浦線北薪峴驛前 新興旅館 ㊂三成運送部 主 宋鑽文

滿浦線北薪峴驛前 檀峯金山 李顯教

滿浦線北薪峴驛前 金鑛藥 水案內 興盛旅館 主 金承祿

滿浦線北薪峴驛前 壽仁醫院 醫生 梁鶴祥

滿浦線北薪峴驛前 丸藤運送部 梁賢星

滿浦線北薪峴 杏江旅館 崔相省

東倉面北薪峴 農村振興會長 金重彬

滿浦線北薪峴驛前 布木雜貨 主 金燦基

謹賀新年

大田

大田府春日町
朝鮮革具製造合資會社
電話六一二番
振替京城九八七〇番
代表社員 金章憲

大田驛前
洋品雜貨
和信商會
電話二〇七番

朝鮮忠南大田府本町二丁目四八
南昌堂大藥房
電話四七〇番
振替京城八四九五番

大榮學院
日光學院
寶文學院
永信學院

大田府大興町
金教駿
電八一七番

大田府大興町
鑛業家 孫均玉

大田府東町
鑛業家 姜永泰

大田府西町五六
韓定澤

大田府本町二丁目
委託運送株式會社
取締役社長 俞昌穆
專務取締役 禹一謨

大田府本町二丁目
半島荷主運輸組
主 宋寅範

大田府本町一丁目
神聖醫院
電話六〇六番

大田府大興町
德濟醫院
院長 金康熙
電話九一五番

大田郡北面
新灘津金融組合

朴榮緖

金炳圭
李仁圭

大田郡杞城面元亭里
金秉奐
安孝一
金昌熙

大田郡杞城面佳水院里
徐相慶
姜大碩

大田工科學院
職員一同

大田郡炭洞面新聖里
黃仁鍵
張治杰

大田府本町二丁目
崔南基

大田府柳町四五
康奇薰精米所
電話八六八番

大田市場
金文山精米所

大德郡
鎭岑面事務所職員一同
懷德面事務所職員一同
北面事務所職員一同
東面事務所職員一同
九則面事務所職員一同
外南面事務所職員一同
山內面事務所職員一同

大田府春日町二丁目一〇二
東亞洋服店
電話八二一番
振替京城四九三八番

大田府本町二丁目
和洋雜貨 各種메리야스 時計
朝日洋品店
主 姜二童

大田府本町二丁目(東拓前)
和信洋靴店

錦山旅館
主 鄭權鍾

大田府本町一丁目
大田酒造株式會社
電話六〇五番

錦山馬田市場
富國酒造場
主 宋容國

忠淸南道
第一食堂員一同

忠淸南道警察職員一同

大田府會議員
二十日會

大田府大興町
朝鮮料理元祖
大興館
電話七三九番

和洋料理
樂園
大田府大興町
電話一〇九番

大田券番
藝妓 申南淑
大田府春日町二丁目六六番地

大田券番
藝妓 崔楊柳仙
大田府春日町二丁目三二番地

大田券番
藝妓 金月仙
大田府大興町四八四番地

大田府春日町二丁目
自轉車及附屬品修繕
南海自轉車店
主 曺善萬

大田府本町二丁目七〇
各種自轉車 오토바이 附屬品一切 修繕部 散賣
忠大自轉車店
主 趙佛功

大田府本町二丁目八一番地
三河商會
電話七〇七番

大田府本町二丁目
菓子問屋
三玉堂
電話二一四番

大田府本町二丁目四番地
權寧宇精米所
電話取次六三六番

大田府本町二丁目
金物
鄭九澤商店
電話八一一番

大田府本町二丁目市場通
大田食肉販賣組合
大同社總本部一同

大德郡炭洞面
姜大馨
李明基
文必受
尹周鉉
尹震漢
柳應烈
柳興烈

大田府北町
鄭一悳
電話八一九番

大田府本町二丁目四五番
大東商事株式會社大田支店
電話五四七・三〇番

大德郡廳

大田産業組合
電話五一二番

大田府春日町二丁目
合資會社 興業社
電話三六九番

忠淸南道立
大田醫院職員一同

忠淸南道大田府
愛國生命
大田出張所
所長 尹肯燮

大田醫師會一同

大田府本町
億星商會
主 辛亨模

大田府大興町
金剛酒造株式會社
電話二三三番

湖南線佳水院驛前
佳水院酒造場
李明熙

大德郡鎭岑面
朴在淳
申澤均
鄭萬榮
黃大顯
宋鍾文

大德郡炭洞面秋木里
眞宗大谷派
興龍寺

大田府榮町
日本生命大田支所

大田郵便局
職員一同

忠南大田府本町一
洋品
鮮南商會
主 白樂[illegible]

大田府春日町二丁目
慶尙旅館

大田府本町二丁目
平安旅館

大田府本町二丁目
東洋機械貿易社
大田支店
電話九二〇番

大田府本町二丁目
大田製油所
電話長一六〇番

大德郡炭洞面自雲里
振興會長 金顯徵

儒城市場大儒精米所
面協議員 朴在乙

儒城親和會

大德郡九則面
梁秉契
金永基
崔弘詰

大德郡九則面田民里
面協議員 朴喜榮

大田府春日町二丁目
綿布雜貨商
金成商店
丁午相

大田府春日町
南星寫眞館

大田府春日町一丁目一八番地
中鮮寫眞館
陸順玉

大田木材商組合

大德郡儒城面
李相賢
宋欽弼

大德郡懷德面
朴吉浩
任公榮

京釜線新灘驛前
金漢經

大德郡杞城面鳳谷里
千相鉉
宋文圭

大德郡杞城面黑石里
金潤石

大德郡儒城面
藥種商 申政均

大德郡北面新垈里
宋乙用

儒城市場
海益釀造場

大德郡懷德面邑內里
郭魯一

大德郡懷德面宋村里
宋洛彬

大德郡儒城面上垈里
面協議員 李象壽

大德郡外南面弘道里
呂永馥

大德郡炭洞面新城里
李康說

大德郡炭洞面盤石里
藥種商 李相舜

新灘津
申泰浩
李圭釆

大德郡北面木上里
郭鎔雨

大德郡炭洞面下蓋里
振興會

江景

江景公立商業學校
江景公立實科女學校
江景公立小學校
江景公立普通學校

全北益山郡望城面新鶴里
桃源釀造元
金善酒造場
電話一八六番

江景
海陸物產
委託貿易
直營
㊀金炳允商店
㊀天一運送店
電話長六六番

江景
朝鮮料理 大成館
電話一八八番
朝鮮料理 明月館
電話一四九番

江景和信連鎖店
主 朴錫圭
電話一〇四番

忠南道會議員
姜永植
裵榮春
西島寅吉

江景
金容琦
金容奎
金容元

忠南江景中町八八番地ノ一
延壽堂乾材藥局
裵榮繡
蔘茸唐草藥材直輸入商
電話三三番
電信略號ハイ(ヌハ)배

江景
共信材木店
電話一七五番

朝鮮湖南線江景驛前
鐵道貨物取扱
海陸物產委託
穀物貿易
⺅大成運送店
主 張志澤
電話一一二番

朝鮮產業株式會社
社長 尹吉重
支配人 李殷序

株式會社
江景魚菜市場
社長 尹吉重
支配人 方翼煥

江景
高相俊
電話一七九

江景邑會議員
丁興煥
金養浩
石本盛治
金容琦
甲賀倭治

論山郡彩雲面三巨里
金晟煥
金東賢
柳志洪

林川邑舊校里
金鎭哲

益山郡龍安面九山里
楊俊熙

益山郡龍安面九山里
金海先
金海龍

江景
湖南病院
江景醫院
中央醫院

絹綢 布木
忠南商會
電話一〇七

絹綢 布木
江景商會
電話一〇九

論山郡新愛面
花興酒造場
主 李興世

江景邑
電話四二番

論山郡陽村面
剛庵農場

論山郡
初等學校職員一同
(但江景初等學校除)

江景邑中町
和信洋服店

江景朝鮮紙貿易商
株式會社 三益社

論山旭町
至誠病院
院長 金憲植
電話一八番

忠南江景邑中町
合名會社 壽星堂大藥房
電話五二番
振替京城七四九七番

江景大和町
泰盛質屋

江景邑西町六番地
各種高級ゴム靴 肥料食糧雜貨
李康福商店

江景
柳翼琡

江景
錦江園

江景邑中町
精米業 姜東基

江景勞動組合

大同社江景支部
支部長 白寬春

江景
中央ミシン商會
南鮮木工場

江景
方翼煥

江景
金容漢

江景邑本町
永保農場

江景消防組合
組頭 石本盛治

論山郡農會

論山本町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論山郡陽村面長
金宅鉉

朝鮮江景邑中町二四四
東一堂乾材局
李雲泳

江景測量事務所
主 林敎承

江景稅務署
職員一同

江景
孟哲鎬

望城面協議員
黃熙壹

江景
鄭淳澤

江景邑中町
方海容

江景
金道逸

江景
黃義亮

江景
金壬成精米所

株式會社
東一銀行江景支店

江景
滋養軒

江景
崔潤權

司法書士
李永稙

江景邑西町
新化洋服店

江景
平和自轉車店

江景邑本町
扶餘旅館

益山郡龍安面昌里
吳禹鎬

益山郡龍安面九山里
姜錫斗

益山郡龍安面九山里
任東[illegible]

益山郡龍安面校洞里
曺秉駿

益山郡龍安面
會計員 徐重植

益山郡望城面新鶴里
合資會社野口精米所
代表者 野口定吉

江景邑中町
韓昌義

江景
朴魯郁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群山支店江景出張所

彩雲面花亭里
金哲權

益山郡望城面
面協議員 李斗熙

皇華面[illegible]
朴東來

ミシン會社江景分店

江景
中華商務會

江景
李鍾和

江景市外
權炳善精米所

朝鮮江景
合名會社 高橋精米所

江景
李文錫

益山郡望城面內村里
李英熙

江景郵便局長

中和

中和三日會

朝鮮日報社中和支局
支局長 金明煥
電話八番
振替京城二三八一二番

慈山

順川郡慈山事務所
無名氏

豊得里
金壬德

慈山面慈老里
孝仁學校長 李萬華

崔東禹

長篇小說

林巨正 【20】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송악산(二十)

배돌석이가 편장군들 차자갓더니 편장군이 한집 어울러드는모양이나 큰편장군에서 전고에업는 편장군으로 유명한둔배들석이 눈에는 편장이나고 아인들작나헐직하야 구경할통치가 엽섯다 그리하야 틈후 산후로들리가라고 오는길에 처남아이가 정신업시 달음박질하야 오는것을보고 어듸갓다 오느냐고 뭇츨고물엇다 김억석이아들이 갓순돌을 몰린뒤에 전후사단을 엮주다 이얘기하야 배돌석이가 듯고나서

『산우에 갈것업시 나하구가치 부산동으루 가자』

말하야 압세우고 오는길에줄매질하기에 알마즌 조약돌을주서서 소매에도 너코 손에도들엇다 김억석이아들이 소나무선 산모퉁이를 갓가이왓슬때 뒤에 오는 자형을 돌아보며

『인제 다왓세요 요기만 돌아서면 고만인데 엇더케하실렵니까 저소나무에 가 부러서 서엿보심렵니까 그동안에 그놈들이 사람을 죽여노쿠ㆍ다 내빼지나 안엇는지몰으지요』

하고 말하니 배돌석이는

『가만이 잇거라』

대답하고나서 소배속에든 조약돌을 따로 끄내노코 소배달린 거추장스러운 우웃을 버서서 돌돌말엇다

『우웃은 저기어듸 풀섭에 갓다놔두구 독맹이는 네가 적삼아페 싸들구 내뒤를 따러오너라』

배돌석이가 조약돌을 바른손에 한개 왼손에 댓개 골라서쥐고 그남아지는 모두 처남아이에게 맛긴뒤에 소나무선곳에가서 구석진안팟을 드려다보니한놈이 방장황천왕동이 안해를겁욕하라고 서드는데 네놈은 조런을놓고 대여섯놈은 대가리들을 하데모흐고 낄낄거리고잇섯다 배돌석이의 바른손이 번쩍들이며 겁욕하랴는놈의 뒤통수에 돌이 들어가마젓다 그놈이 한손으로 뒤통수를 만즈며 뒤를 돌보자 잽차 손을가디들어가는 돌이 낭미간을 따려서 그놈은 그자리에 꼭그라젓다 황천왕동이안해의 사지를 각각잡고잇든 네놈이 일시에 우 일어서는데 여기서 딱 저기서딱 두놈은 압이마들이 깨지고 한놈은 망거뒤가 짜개젓다 배돌석이가 처남아이에게 손을 내밀러서 돌을 바들때에 여남은놈이 소리들을 지르며 쪼처나와다 김억석이아들은 겁이나서 들고뛰고 배돌석이는 일변 뒤로 피해나오며 일변 돌들매를 처다 풀매질 대번에 머먼허한놈의 마정거만 그중에 섬마진놈이 잇서서 쪼처오는놈은 너덕이나 넘고 손에 돌은 하나도 업서서 배돌석이가 장딴돌을 노하 처남아이를 쪼차와다 돌을 달라고 손을 내미니 처남아이가 적삼안을 나려다보며 고개를 가로 흔드럿다 적삼압섭을 붓잡앗든 손이 뗘어오는중에 제풀로 노혀서 돌을 떠러트리고 몰랏든것이다 길에돌이 만러리고 박힌것을 빼내거나 더욱이 손에 알마진것을고르자면 자연 동안이 걸려서쪼처오는놈에게 잡히기가 쉬운데 우거진솔숙 외자욱길에 돌이당초에 눈에띄이지 아니하야 쪼처오는놈들과 맨주먹으로 싸우는수밧게 업섯다 돌이 열개잇스면 열사람을 당하고 돌이백개잇스면 백사람을 당하겟지만 돌업시 맨주먹으로 당하기는 너덧사람도 힘에 벅차서 배돌석이가 도망길을 치려들엇다 그동안에 쪼처오는놈들이 발서갓가이 다아와서

『이놈 어듸루 내빼느냐』

『이놈 게잇거라』

소리들이 곳 등뒤에서 들릴때 배돌석이는 별안간에 돌처서서

『이놈들 돌 바더라』

소리를 크게질르며 빈손으로 풀매질치는시늉을 내엿다 그놈들이 돌풀매의무서운손을 알아서 납작납작 풀숙에 업드렷디 배돌석이와 김억석이의아들이 이틈을 타서 도망질들하야 부산동서 송악산으로 올라가는 원길에까지 나와다 배돌석이가 길빠닥에서 조악돌을 여러개주서쥔뒤에 한참을 기다려보앗스나 뒤쫓는놈들의 그림자도 보이지아니하야 되집어 쪼처오랴고생각하얏다

『너는 빨리 산후에 올라가서 너의아버지더러 너의누님이나 누구나 아직구하나를 데리구 나려오라구 말해라』

처남아이는 산후로 올려보내고 배돌석이 혼자 차점차점 다시오면서 아폴 바라보니 그놈들이 혀동매에 속오자리에서며지아니한곳에 모혀서서 무슨공론을 하는모양이엇다

『엇다 인제 돌 바더란』

배돌석이가 소리질르고 쪼처들어가며 풀매질을 다시 시작하얏다 한놈은 그자리에 엎드러지고 한놈은 몃거름을 달아나다가 쓰러지고 두놈은 쩡의병아리가티 기어서 풀속으로굴어갓다 황천왕동이안해가 굼굼어오는동에 풀속에 가못어시숨하야 배돌석이가 아프로 더들엿든 두놈이 눈결에 뛰여나와 밧착 대들엇다 배돌석이는 손에남은 돌을 내던지고 주먹다짐과 발길질로 두놈파 마주싸웟다

賀正

여러분의건강과행복을아울러비나이다!

올해에도변함없이값싸고손쉽게모든음식을맛잇게해주는아지노모도를한결같이애호해주소서

昭和十三年 元旦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味(아지)の(노)素(모도) (登録商標)

メガネ 萬年筆

良品廉價

直輸入卸 金剛商會

仁川府京町一六七 振替京城二四六七〇番

商報進呈

小資本工業案內

小資三千錢切送하시면本大成功에關한化粧品一切日用品을 製造할수잇는工業案內書를送呈 (原料商)

京城府長沙町二九 泰昌工業所

狸 里

狸、獐、山猫、狼、鶴、鷲、虎、豹、獺、穴熊其他

高價買入す

東京市下谷區入谷町三九〇

山口屋小動物園

パコダ公園東門側

齒科

京城楽園町一四六 電光③三〇二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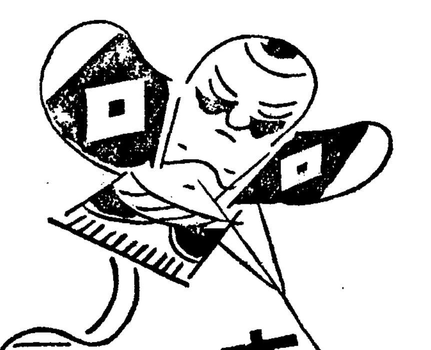
大京齒科醫院

院長 金喆庸

前世医専歯科 技工部主任 李龍基

分院 京元線議政府駅前 擔任医師 蔡禧銘

M131



本日 虫退治 マクニンデー (마구닌데ー)

먹기쉽고、잘듯고・害가업다

1、効力이強하야副作用中毒作用이업슴
2、死虫으로排出하므로 不快感이업슴
3、一回의 多量服用連續服用共히安全
4、下劑의必要가업고 따라서먹기쉽다

錠劑 一日量十錠大人	ゼリ
.30	.20
.75	.50
1.35	1.00
	2.00

冊子「恐ろしい蛔虫」無代進呈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長篇小說『愛慾의彼岸』大發賣中 朝鮮日報出版部發行

御贈答에!

日魯の あけぼの印さけ罐詰 オーロラ印

보내서安心 바더서貴重!

製造元 東京 日魯漁業株式會社　發賣元 東京 株式會社北洋商會

●感嘆! 感嘆! 정말頭痛에썩조흔 ノーシン이다●

기침藥中唯一의호르몬含有製劑

기침을낫게하고全身에活力을振起식히는

담기침 천식

龍角散의合理治療

무서운變症、폐염、륵막염으로 되기전에 곳처주십요

기침은氣管支內에잇는汚物을外部로排泄하는作用이오나 이것이頻發되는때는 한부를자극식혀서 고장을일으키여 무서운變症을일으키기쉬우니 本劑는 그런증세로되지안토록 미전에 곳처줍니다

龍角散本舖 前景

백일해의류행기가왓스니 하로바삐本劑로치료하여주시압

百日咳는 아해들께 무서운화근을남겨주는 무서운기침병이오니 어린아해의死亡率이 약二十五파ー센트나점하고잇으니 아해길으시는가정에서는 꼭本劑로치료하여주시사 미전에豫防하여주시압

登錄商標

龍角散 (룡각산)

▲龍角散의主治效能▼ (맛이조코 먹기좋으며잘듯는약)

기관지성、심장성등의 천식

열이나거나 없는 流行感氣기침

담이몹시나오는 담기침一切

血痰、바른기침이나는 肺病患者기침

기침이심하야고롱을받는 氣管支加答兒

어린애들께가장위험한 百日咳、麻疹咳

定價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本舖 東京市神田區豐島町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 九一番 電話浪花(867) 一(三六三)番

△全道藥房에서販賣하고잇습니다

朝鮮貿易額新記錄 十五億四千萬圓

輸入超過一億八千餘萬圓 但輸入超過大減退

昨年中 朝鮮의 貿易總額을보면 從來의 最高記錄이든 昭和十一年의 十三億五千五百七十三萬餘圓을 훨신 突破하야 十五億四千五百七十五萬餘圓에 達하야 朝鮮產業의 躍進的發展事情을 如實히 證明하고잇다 即 計數를보면(單位百萬圓)

	十二年	比前年增
輸移出	六八二	八八
輸移入	八六三	一〇一
合計	一、五四五	一九〇
入超	一八一	一二

으로 輸移出은 一四%九八 輸移入은 一三%二七 合計는 一四%〇二이고 入超는 七%二四의 增을보앗다

對滿貿易首位

이를 다시 對外 對內別로보면 다음과갓다

▲對外貿易(單位百萬圓)

	昭和十二年	比前年
輸出	一二二	三七增
輸入	一二八	一三增
合計	二四一	五一增
入超	一五	二四減

結局은 輸出이 旺盛하엿슴을 보이고잇는데 輸出地別로보면

▲輸出

滿洲國	九二、一七七千圓
中華民國	四、八一〇
其他	六、一〇九

▲輸入

滿洲國	六九、三六七
中華民國	一〇、三六七
其他	四八、六五〇

對滿貿易이 首位를 占하엿다

▲對內地貿易(單位百萬圓)

	昭和十二年	比前年
移出	五六九	五一
移入	七三五	八七
合計	一、三〇四	一三八
入超	一六六	三六

等으로 輸出入을 通하여 對滿貿易이 首位를占하엿다

十二月移出額 最高記錄示現

十二月의 移出額은 米의出荷가 記錄的好況을 무한것이 主因이되여 過去의 最高記錄인 昭和十年十二月의 六千五百萬圓을 超過하엿다 即十二月中은 移出七千九百四十四萬圓、移入六千六百十五萬圓、出超一千三百二十八萬圓에 達하엿다

十二年朝鮮貿易概算額

區別	昭和十二年(千圓)	昭和十一年(千圓)	增減額(△은減)(千圓)
對外國貿易			
輸出	一二三、〇九七	八五、二六五	三七、八三二
內 滿洲國	九二、一七七	六五、四四二	二六、七三五
內 中華民國	四、八一〇	六、二九〇	△一、四八〇
內 其他	二六、一〇九	一三、五二二	一二、五八七
輸入	一二八、一一六	一一四、九一八	一三、一九八
內 滿洲國	六九、三六七	四九、六八四	一九、六八三
內 中華民國	一〇、三六七	二一、〇三〇	△一〇、六六三
內 其他	四八、六五〇	四四、二〇四	四、四四六
合計	二五一、二一三	二〇〇、一八三	五一、〇三〇
輸入超過	五、〇一九	二九、六五三	△二四、六三四
對內地貿易			
移出	五六九、一〇一	五一八、〇四七	五一、〇五四
移入	七三五、四一三	六四七、九一八	八七、四九五
合計	一、三〇四、五一五	一、一六五、九六五	一三八、五五〇
移入超過	一六六、三一二	一二九、八七〇	三六、四四二
對外國及對內地貿易			
輸移出	六八二、一九九	五九三、三一三	八八、八八六
輸移入	八六三、五二九	七六二、八四七	一〇〇、六八二
合計	一、五四五、七二八	一、三五五、七六〇	一八九、九六八
輸移入超過	一八一、三三〇	一六九、五三四	一一、七九六

十二月米移出高 過去記錄을凌駕

朝鮮米의 移出은 昨年末에 際하야 極히 活氣를 띄워 十二月은 前年同期의 百六萬四千餘石에 對하야 百四十九萬五千七百八十一石으로 四十二萬九千餘石의 增을보이엿다 그리고 輸出도 多少增加의 勢를보이고잇다 이가치하야 過去의 移出高의 最高記錄인 昭和九年十二月의 百三十五萬九千八百八十八石을 凌駕하는 數字를 보이고잇다

江界水力月末創立

非常時局의 土木景氣를 如實히 말하고잇다

江界水力의 創立은 諸種事情에 依하야 遷延되든바 來一月十日 發起人會를 東拓本社에서 開催하고 十五日 四分의一拂込을行한後 月末創立總會를 開催키로

土木景氣 契約一億突破

昭和十二年中의 全朝鮮土事請負高는 旣契約의것만으로도 九千三百四十九萬圓에 達하엿든데 이에다가 軍部關係의 特殊工事와 日系의 鴨綠江水電關係諸工事를 加算하면 一億圓을 突破하야 一億二千萬圓以上에 達하리라한다 이것을 前年의實績에 比하면 實로 四千五百萬圓以上의 激增으로

資金의需給移動 會社計畫等報告

資金調查規則內容

大藏省에서는 省令으로써 國內資金調査規則을 發布하엿는데 朝鮮에서도 이에對應하야 一月四日附官報號外로 府令으로써 同規則을 發布하엿다 同規則은臨時資金調整法 第十六條의 規定에 依한것으로 그要點은

一、朝鮮總督은 隨時人及事項을 指定하여 資金의 需給及移動 證券等에 關하야 報告를求할 수잇고

二、資本金五十萬圓以上의 會社 또는 昭和十三年中에 增資에依하야 資本五十萬圓以上의會社 가될 計畫을가진 會社로서同規則別表指定의 事業에屬하는 設備의 新設 擴張又는 改良을하려는 計畫이잇는것 또는 別表指定의 事業을 目的으로하고 昭和十三年中에 設立될

資本五十萬圓以上의 會社는그 昭和十三年中의 資金計畫의報告書를 一月十五日까지 提出할것

府令發布

四日付府令第四號로써 公布即日施行된 鮮內資金調査規則內容은 如左하다

一、朝鮮總督은 臨時資金調整法 第十六條의 規定에依하야 同條第一號、第二號及 第四號에 揭한 事項調査를爲하야 必要한 報告를 徵함을得함(第一條 第七條)

一、資本金五十萬圓以上의 會社 又는 今年中에 增資에依하야 五十萬圓以上이될 會社로서 今年中에 探鑛、土石採取、紡績、金屬、機械器具、兵器、窯業、化學工業、製材及木製品工業、印刷製本、電氣、瓦斯、其他의工業、水產、交通、倉庫業의新設擴張 又는 改良을하려는計畫이잇는者는 二月十五日까지에 그資金計畫報告書를 朝鮮總督에 提出할을要함(第二條)

一、但 右資金이 三萬圓以下인時에는 前項의報告는 提出을 要하지안흠다 一月十五日까지에 그旨의 報告書를要하며(第三條)그後十二年中에 所要資金五十萬圓以上에及하는者의 新設擴張又는 改良計畫을 하게될 때에는 그때마다 報告를要함(第六條)

前年事業을 目的으로한 資本金五十萬圓以上의 會社를 今年中에 設立하려할때에는 그會社의 發起人代表者는 同樣으로二月十五日까지 資金計畫報告書를 提出함을要함(第四條)

一、前項報告書를 提出한 會社로서 資金에 五十萬圓以上의增減을 生할때에는 그때마다變更報告書를提出함을要함(第五條)

一、本規에依한 報告는 總督府에 直接 모든것을 提出할것(第八條)

自作農地補助額 十五萬二百四十二圓

昭和十二年度 自作農地設定維持事業에對한 國庫補助에關하여서는 各道의申請에對하야 査定中이든바 左와如히決定 六日付로 各道에補助指令을 發하엿다 即補助總額은 十五萬二百四十二圓이고 그內譯은

京城 一〇、〇〇〇圓 忠北 一〇、九〇〇圓 忠南 一〇、〇〇〇 全北 一〇、〇〇〇 全南 一〇、〇〇〇 慶北 一〇、〇〇〇 慶南 一〇、〇〇〇 黃海 一〇、〇〇〇 平南 一〇、〇〇〇 平北 七、〇〇〇 江原 一〇、〇〇〇 咸南 一〇、〇〇〇 咸北 一〇、〇〇〇

인데 本事業의 昭和七年以來의 補助實施累計額은 十二年度 分까지四十五萬七千百九十圓이다

昨年中手形交換 十二億突破

百五十九萬五千枚

昨年中의 京城手形交換總額은 枚數百五十九萬五千枚 金額十二億二千四百六十五萬二千圓을 示하야 總額十二億突破의 新記錄을 만들엇는바 上下期別로보면 如左하다

	枚數	金額(千圓)
上半期	七七〇、三六五	六〇二、三三三
下半期	八二五、二三六	六二二、三一九

一千四百七十三枚 二千四十六萬二千六十四圓의 各激增을 示하야 年末決濟繁忙을 想하얏다

年末手形交換激增

昨年十二月廿七日로부터 三十一日에至한 京城手形交換所 手形交換高는 四萬七千三百五枚四千四百六十一萬七千二百二十一圓으로 前週中의 交換高에比하면 一萬

雜貨運賃再引上

二割乃至四割程度

朝鮮版船間의 雜貨運賃은 昨春全般에 亘하야 二割乃至三割의引上을 行하얏는데 其後海運界의 特殊事情을 中心으로한 市況의 硬化에 依하야 再次引上케되기에至하야 朝郵、商船、尼崎의三社에서는 『세멘트』肥料、金物等運賃擡頭이 增大한商品만에 限하야 三割乃至四割程度의 大幅引上을 하기로內定하고 監督官廳의 認可를 得하야 二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되엿다

棉花同業會 北支棉購入

北支의 政權確立에 伴하야 그經濟開發도 着着進行되는데 就中北支棉의 增産計劃에 對하야서는 이미興中公司、東拓等이 各其事業方針을 決定着手하고그將來는我國紡績業에잇서 注目되는바이에鑑하야 朝鮮棉花同業會에서는 前立初의 第一着手로서 東棉을通하야 北支棉을 買入키로하고 이미發注하얏는데 總督府에서는 棉業統制의 立場上 크게贊意를表하고잇다

經濟界消息

○朝取田崎氏認可＝十二月定期總會에서 理事로選任된 朝鮮取引所支配人田崎愿雄氏는 六日附로써 總督府로부터 認可되다

虛川江水電

出力卅五萬키로 昭和十七年完成

虛川江水電의 發電工事는 端豐鐵道가 本年三月 路盤工事를 完成하고 今春부터 運轉開始에 入케되얏으로 本格化되어 第一파 第二發電所及 送電網建設의 測量을完成하얏다 解氷期初에着工할터이데 同水電은 豫定을變更하야 出力十五萬키로를 增加하고 總計三十五萬키로를目標로 昭和十七年度에 完成할計畫이다

二億九千百萬圓

歲末鮮銀券最高記錄

鮮銀券發行高는 年末二十七日 二億九千百二十萬四千六百三十六圓六十錢을 最高記錄(限外一千九十二萬六百十六圓九十二錢)으로하고 收縮되엇다 限外는三十日千百五十萬六千九百七十二圓七十다 十九錢이 最高이엇다 그리하야 三十一日 發行高는 二億七千九百五十萬一千八百四十圓六十錢(限外發行一千七十一萬四千五百九十七圓八十五錢)이엇다

期米、株式初市勢豫想 懸賞募集適中者發表

昨時報에 第二年의 新春初市勢一懸賞募集하엿든바 期限인一月四日까지 應募總數三千百三二十九枚의 多數에 達하얏고 適中者가 八十八名이엇다.

昨年通中者 七十一名에比하면 十七名이나 增加된것은 一般의 市勢에 對한 觀察眼이 進步된것을 意味하는것으로서 欣快하야 마지안는바이다 規定에依하야 六日正午 審査立會下에 適中者에서 各等級을 嚴重公正히 抽籤한結果 左記諸氏가 新年幸運을 어더 賞金決定되엿다.(賞金은 追後發送)

▲朝取期米(三月限寄付値) 三十一圓六十錢(適中者四十五名)

一等 (慶南咸安郡漆谷面介峙里) 尹漢哲

二等 (京畿道開城府...) 李先宗 / (京城府...) 崔○童

三等 (富川郡大阜面北里) 金光誠 / (全北...) 朴吉成 / (京城府...) 金昌沫 / (開城府...) 馬○一

▲朝新株(朝取短期前場寄付) 三十六圓二十錢(適中者三十四名)

一等 (江原道鐵原中央水利組合) 李台夏

二等 (京城府延建町二七) 文昌燦 / (平北龍川郡...) 鄭昌錫

三等 (慶州郡...) 李正煥 / (京城府...) 李源植 / (京城府...) 吳善和

▲東新株(朝取短期前場寄付) 百七十一圓八十錢(適中者九名)

一等 (平康郡平康面福溪里六〇八) 秦世源

二等 (咸興府...) 朴永華 / (黃海道長淵邑南里) 金鳳丙

三等 (京城府...) 金明鎬 / (安城...) 李朝欽 / (京城...) 李台鉉 / (江原道鐵原中央水利組合) 李台夏

株式 嫌氣投로 崩落

今日의市勢(六日)

엇는데 國民은 仁川支店長으로서 一月下旬經任하리라고 한다

前場崩落

休日中의 外電은 新甫不冴에 뒤니어 人氣는 沈靜하엿스나 維株懸心의 買氣는 不衰하야 鐘新도 堅調하고 日產도 少高이엇스나 東新은 終始伸惱로 百七十二圓臺를 回復하지못하고 多少閑散하엿다 東新百七十一圓七、鐘新二百八十二圓一、日產八十六圓八、朝新三十六圓六으로 前場을 마치엇다

後場崩落

後場은 東新百六十六圓六 鐘新二百八十圓丁으로 暴落寄付後에 嫌物이 殺到하야 落潮 再落東新百六十六圓臺에 示現하엿다

主力低、雜株高

今年의 初立會는 比較的閑散裡에 凡調를 보엿거니와 休日을 지낸 今朝에도 別材料가업는데다가 局面情勢는 不透明하야 前途透視는 依然困難하므로 處分物以外에는 大體買가업서 場面은 活氣가업고 市勢도 底堅하기는하나 依然不冴狀을 免하는 狀態이다 그런데 注目할것은 主力株는 比較的軟弱하고 雜株는 堅强한 새로운傾向이다 即初立會에 東京市場에서 某有力側이 鐘紡八千枚를 投하야 鐘紡이二百八十圓割이되엿스나 押目買物로 다시惡材를緩衝하야 堅强狀이된것을 爲始하야 今朝의 日產의 反撥、鐘實의强調、人絹株의 强含等等 雜株에는 모두買氣가엿보이고 잇다이는勿論 如何히 限勝이될레를期待하는 事變前途透視가 不可能 以上은 今日에 利喩買에 妙味가업고、探算的으로보아 低位에잇는 雜株를 買狙하는것이 當然한順序로보아야할것인데 特히 東新의 先驅的軒開으로 主力株와雜株의 範開는 좀 度를지나치게 되엿스므로諸株의 水平運動으로 미리 어雜株買、東新賣가 始作되는感이 不無하야 적어도 議會再開까지는 主力株保合 雜株高로 株界內部의 均衡運動이 繼續될것이 아닌가 觀測된다

頭重伸惱氣味

客年末納會後에 政府米의 賣却이 되지안흠가하야 强迫味로 越年하는 初立會는 米券 가 겨 하 후 게 된 다 고 後 頭

越年後의 新年은 何等의 發表가업시 마치게되엿다 그래서 去四日의 初立會는 大上顎로 豫期하엿든 新甫三月限이 各地를通하야 薄上顎로 發會되어 若干의 高價를 示하엿스나 繼續上伸치못하고 反落軟調로 新春의 第一幕을 마치고 第二日인 今朝에 入하야는 東京은小軟 阪地는 小强 當地亦小强으로 場을始하엿는데 當中兩限만은 正米實勢의 強調를不拘하야 殆히 頭重하야 前途의 動靜反落의 形勢를보이고있다 此에 一考할 事情과 產地農家의 態度를보아서 는 前途米價의 騰貴를 否定할수업스나 그러나昨年秋季에 底入올 내였 後年末에 至하기까지 騰勢는 騰勢를거듭하야 强材를 다 材는거의 織込되엿다할수잇슬만 더러 政府의 態度에 買上을 遷延하는모양이는後에 比率로 此際에 一段下押이 잇슬는지도 알수업고 그 騰을 보이지 안흘가 한 商談도 업지 아니하다

後場底强

後場은 三十一圓七十五錢이 三丁低로 始한後 一一刻底强氣味에 保合이엿스나 底意는頑强하엿다

先限은 群米買物이 現出하야 三十一圓八十錢인 四丁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五十錢으로 反落하야 八錢下로 보고 七十八錢에서 終熄하엿다

今日財界大日

▲米 大阪期米先限(中位以下) 三一、六八 / 京城正米(一等白米) 一石 三二、四〇 / 正租(二川) 一斤 / 固定貝戶現

▲絲 東京新紡 / 大阪新紡 / 人絹 / 棉花

金融은樂觀視

雜株買氣로 東新은軟弱한中에 도 諸株支援으로 底堅狀을보이 고잇는데 周圍는 不透明하다고하 나 金融만은依然 緩慢狀態가繼 續되어 이方面의 憂慮는업는것만 큼 戻貸的商狀을보이고잇는 東 新으로서도 大幅低落은突破事件 이업는限업슬것이오 雜株의 開始 가訂正되기를기다리고 다시議會再 開後 政府의財經策의 動向이 뚜 렷이보인다음에 再次活動을 開始 할모양이므로 當分間은 東新을 限하야 大市勢는 업을모양이오 一 高一低로 玉整理가 進行될것으로 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 上述한바 와가티 金融情勢에는 異狀이업 스므로 부질업시 悲觀한 弱氣만 을가지는것은 警戒할일일것이다

國債 米貨低나 好調

【東京電話同盟】金融情勢의 好 轉과 生保의 公債消化積極形 勢를보고 漸騰好調를보여 內地 價는 모두十錢乃至二十錢高 佛 貨價는二十錢高로 上伸하엿는 데 米貨만 價格賣가 散見되어 六分半 五分半共히 一圓을 下 押하엿다

期米 頭重이나 底强

前場保合

今朝東京先限은 三十四圓八十二錢인 三丁低 大阪은 三十四圓五十八錢인 三丁高 로寄付하고 當限은 三十四圓四十 錢인 四丁低 中限은九厘의 賣 物로三十四圓三十七錢인 十丁低

市場六感

株……新春은 마젓스나 市勢는 新時 實方期待에 어긋 形으로 場面은無活氣▲雜株堅 强에 比하면 東新은 顯著히 軟弱▲諸株의 水平運動이라고 보면 그만이나 雜株活躍時代 가오는데 主力株도 强함것이 오▲主力株가 轉換을 보인 다면 雜株買氣에 持續도疑問 ▲現在로는 破行的이것이 明 白하나 結局은 情勢不透明에 依한 靜觀時期가 아닐가▲高 遠한 理想을 實現하려면 現 實과 惡戰苦鬪하야 幾多의波 瀾曲折을격는 人生生活과 마 찬가지로 ▲大市勢展開의 理 想實現까지는 遼遠하야 現實 에嶮한 幾多의 準備는 必要 할것이나▲그저 堅志不拔의精 神으로 邁進할뿐—(金剛城)

米……新春의正米는 殆히頑 强하야 今朝丸仁倂三等은三 十一圓三十錢 正租는 穀良三 等八錢七厘五毛로昂騰▲그러데 濟界市勢는 氣分만은買物이多 한모양이나 實際의步調는別影 響이엇시 頭重伸惱의感이 不 無▲大勢의前途는 非常時인 만치 昂騰을 否認할수 업스 나 그러나 一落後에 本格的 騰勢를 보일는지도 亦未知▲ 그러고 此邊에서 緩騰하는때 는 不遠한時日에 最高公定米 價를 突破하게될 모양임으로 買方도 高價買는 警戒하는모 양(釜山)

越年後의正米

客年末의正米는 丸仁三等三十一圓十錢까지의 低落을示하엿다가 越年하는동안에 產地農家의態度가 春高豫想으로 又一層賣惜하므로 正租는 一斤八錢七厘五毛까지昂騰하고 正米는三十一圓三十錢으로反騰하엿다 今後正米의 實勢가如何히 展開될지는몰으나 客秋以來로 이러타할만한產地賣物이업시 越年하엿스므로 昭農作의朝鮮으로 압흠도出廻될것이만흠것은事實이다 그러고援近內地米의事情으로는 一時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廣告된엇든産地米가 稍漸出來하는듯하야 朝鮮米의 買注文은 自然그리한 點으로보아서는 新春正米 의觀測이 止할뿐으로 압흠으로 時日의經過를 따야 破綻되여은 資物이 現出하야 相當한 反落을 告하지안흠가한 觀測論者도 엇지아니하다

正米 材料待로 强保

京城保合

材料로는 人氣도 現在로는 希望을 傳하야 各地消費의 鈍狀을 極히 市中必需를 除하고는 積極的으로 買하지안코 所持側도 氣迷로 此邊은 不賣不買의 保合을 示하고잇다 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仁川伸惱

產地는 買上豫想 으로 强硬을하고잇는이때에 數日의 休日後의 實需側精米側의 必需買로 氣配十錢高로 好勢를 示하얏스나 그後消費軟弱으로 買 氣沮喪되어 市價도 結局前日同 樣으로 伸惱이엇다 穀良三 等三一、四〇 四等 三一、二〇 銀坊主 三等 三一、四〇 四等 三一、二〇 多摩錦 三等 一、九〇 四等 三〇、七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群山少堅

市中은 閑散氣分 이나 休日後 實需인 業者側의 必需買氣가 强하야 東地의 實態度 强硬과 賣物薄을 傳하야 資物이 적어 各地期米의 伸惱도 그리큰 影響이 엇시 市勢는 十錢高를 보엿 다 三等三一、八五 四等三一、 七〇 一等白米 三三、一五

木浦保合

春高豫想으로 賣方 態度가 强硬하야 市場은 保合하 는 的인 初賣買를 본 外에는 별만한 商談이업고 今朝來 各地定期의 鈍狀을 보고 市勢도 保合이다 三等 三一、四〇 四等 三一、二〇 銀坊主 三等 三一、二〇 一等白米 三三、 ○五

大邱軟弱

年末年初에 當 然잇슬것으로 期待한 第二次買 上의 未發表는 多少氣配軟化를 生 하고 同時에 이를 가로 進展도 緩 制强化로 米價도 鈍化에 阻止되어 市 勢는 十錢軟化를 示하엿스나 大 保合의 樣相을 보이고잇는 漸 算과 相俟하야 正米市場도 上 下의分裂에 잇다고보인다 團 穀良三等 三一、七〇 四等 三一、 五 一等白米 三三、六〇

釜山下押

市中은 正月氣分 이 가시지 안코 內地의 閑散商談 은 有力筋도 動하지안코 各地期米 의不味를 加하야 市價十錢下押되 엇다 丸穀良 三等 三一、七五 四 等三一、五五 一等白米 三三、八 五

東 仁川米豆取引所前 仁川海岸町三丁目 柳後鏡取引店

重石 京城明治町 山商會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京城 證券部・期米部・仁川 福 吉村取引店

益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康

海外經濟 四日

銀行券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蟹油粕・粉麥

◆阪神蟹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金銀價

◆大阪金利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買入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株式

◆朝取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東京短期 ◆大阪長期 ◆鑑定代引日步

期米

◆朝取期米 ◆大邱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京城物價(六日)

▲白米 ▲肥料 ▲紙物 ▲燃料 ▲砂糖 ▲洋灰 ▲京城燃料會社公定 ▲海產物 ▲染料 ▲木材 ▲人絹 ▲本綿 ▲毛絲 ▲牛皮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生絲

◆橫濱生絲

人絹

◆各地人絹

棉花

◆大阪棉花

綿絲

◆大阪綿絲